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2014 7

VOL. 217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Samsung GALAXY Note 3 + Gear

DESIGN YOUR LIFE

Life is a journey of creation.
Make your mark.

Available in two colors:

Samsung
GALAXY Note 3 + Gear

- Featuring the latest technology of Android 4.3 (Jelly Bean)
- Superior performance with 1.9 GHz Quadcore + 1.3 GHz Quadcore
- Crystal clear display with 5.7" HD Super AMOLED
- Multitask easily with new S Pen and Multi Window features
- Exclusive design with premium back cover

Customer service & contact center: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 SamsungMobileIndonesia | @Samsung_ID | www.samsung.com/id

www.koreanair.com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 인천	KE628	2205	0705+1	매일
	KE626	0750	1655	월,목,일
인천 – 자카르타	KE627	1520	2010	매일
	KE625	1925	0035+1	수,토,일

* 대한항공은 덴파사르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a Korean Air office closest to you
Jakarta : 62-21-521-2180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SINCE 1994

Restaurant Korea

ARANG 22

SCBD 확장이전 오픈

각종 연회 및 모임이 가능한 VIP룸 완비.
(넓고 편안한 실내와 최신형 가라오케 구비)

정통 숯불갈비의 맛을
보다 신선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T. 021-5140-1245 / T. 021-5140-1246
M. 0815-1902-4170

Kawasan Niaga Terpadu Sudirman (SCBD) Lot.8
Jl. Jendral Sudirman Kav. 52-53

넓은 주차장 완비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2014년도 제 36회
한국어능력시험

세계 속 한국어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국내로의 유학과 취업 등에 필요한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 · 평가하는 2014년도(제36회)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의 인도네시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험일시
- 2014년 10월 12일 (일)
  - TOPIK I (초급) 09:30~11:10 (100분)
  - TOPIK II (중 · 고급) 12:30~16:00 (180분)

시험장소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고등관

응시대상
-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시험구분

시험 수준	TOPIK I		TOPIK II			
시험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등급 결정	시험 성적에 따라 응시한 시험 수준 내에서 평가 등급 결정					

※ 한국어 능력을 측정 ·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
※ 12년 전과정 학생은 모든 대학에 필수 제출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4년 6월 23일 (월) – 2014년 7월 18일 (금) 09:00~15:30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Jl. Bina Marga No. 24 Kel. Ceger Jakarta Timur
  접수 시 반드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4) 3매 준비
- 접수장소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담당 : 정재선 | Tel. 844-4958)

응시수수료
- TOPIK I | Rp.150,000
- TOPIK II | Rp.250,000

시험시간

구분	교시	영역	인도네시아			시험 시간(분)
			입실 시간	시작	종료	
TOPIK I	1교시	듣기/읽기	09:10	09:30	11:10	100
TOPIK II	1교시	듣기/쓰기	12:10	12:30	14:20	110
	2교시	읽기	14:40	14:50	16:00	70

합격자 발표 예정
- 2014년 11월 14일(금)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성적증명서도 원본이므로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 수험표는 시험 당일 배부합니다. 수험표는 반드시 개인 보관해야 합니다.
- 시험일에 반드시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는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답안 작성용 사인펜은 당일 배부합니다.
- 이전 시험과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숙지하고 지원하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 및 고등부 교무실
  844-4958 정재선(내선153), 김지영(내선342)
- 자세한 내용은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홈페이지(http://jiks.com)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주관
- 국립국제교육원(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NIIED 국립국제교육원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DYNAMIC KOREA

제 목 : 이민법 관련 유의사항

해외에 정착하고 생활하시면서 많이 부딪치고 궁금해 하는 사항들 중의 하나가 이민법 관련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 동포들께서 주재국의 이민법과 관련하여 많이 문의하셨거나 위반하기 쉬운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도착비자

- 취업자격 비자, 비즈니스 비자가 아닌 도착 비자(arrival visa)의 경우, 인도네시아 소재 회사의 본인 명함을 소지하거나,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사용 또는 작업장에 동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 이민청의 단속에 적발 시 강제퇴거될 위험이 높음
  ※ 주재국 내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비즈니스비자 등을 받아 입국하는 것이 안전
- 도착비자로 여러 차례 연속하여 입국하면, 이민청의 주의를 끌어 출입국신고서의 체류지에 실제 체류하는 지 등을 점검받을 수 있으며, 실제 체류지가 신고서 내용과 다를 경우 강제퇴거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음

2. 취업자격 비자

- 취업자격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더라도, '취업자격 KITAS(체류허가)' 와 노동부의 '취업허가' 를 모두 받기 전에 근무를 하면 주재국 이민법에 위반되는 불법취업이 됨을 주의
  ※ 취업자격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경우, 7일(입국일 포함) 이내에 관할 이민청사무소에 신고하고 취업자격 KITAS(체류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취업자격 KITAS(체류허가)' 를 신청하였더라도, 노동부의 '취업허가' 를 받기 전에 근무를 하는 것도 이민법 위반
  ※ 이 경우 이민청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 조치는 물론 기존의 끼따스 진행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함
- 이민청의 '취업자격 KITAS(체류허가)' 와 노동부의 '취업허가' 를 얻은 경우에도 허가받은 회사와 근무장소, 직역과 직책에서만 근무 가능
  - A라는 회사를 통해 KITAS와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 A가 아닌 B회사에서 활동하는 경우 불법취업이 됨
  - A회사의 작업장이 a, b, c 등 다수일 경우, 허가받은 a외의 작업장에서 활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이민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받은 회사와 근무장소 내에서만 활동할 경우에도 직역과 직책이 상이한 경우 이민법 위반이 되므로 주의 필요

※ 마케팅부장으로 취업허가 받았음에도 생산현장을 감독하는 경우, 회사 내 명패나 명함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는 경우 등

3. 복수재입국허가

- KITAS 소지자들은 본인 및 가족을 위해 복수재입국허가(multiple re-entry permit)를 받아둘 필요가 있음
  - KITAS 소지자들은 주재국에서 출국하기 위해서는 재입국허가 또는 완전출국허가(epo) 중 하나를 사전에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최초 체류허가 시 재입국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음
- 주말, 르바란 등 주재국 공휴일에 국내가족 애경사로 갑자기 귀국할 일이 생기거나, 비상상황 발생으로 제3국으로 출국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복수재입국허가(multiple re-entry permit)를 받아놓는 조치 필요

4. KITAS 소지자들의 이민청 신고사항

- KITAS 소지자들은 출생, 결혼, 사망 등 신분변동사항, 국적, 직업, 스폰서, 주소 등 변경 시 14일 이내에 관할 이민청에 신고하여야 함
- KITAS 소지자가 출산한 경우, 주재국 관청에 출생신고(60일 이내)하고, 이민청의 체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
  - 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공항에서 출국이 허가되지 않음을 주의

5. 출입국심사인 날인 여부 확인

- 날인이 없을 경우 이민청에 즉시 신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함

  ※ 도착비자 영수증, 보딩패스 등 입증자료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 날인이 없으면, 출국 시 밀입국자로 간주, 당일에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6. 여권 소지

- 다른 사람의 여권을 소지 · 보관하는 행위 지양
  - 국내 여권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여권은 본인이 항시 소지해야 하는 주요문서로써 본인의 관리 하에 두도록 되어 있음

  ※ 참고로,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도 여권법 위반임을 유의
  - 국내가족 애경사, 비상상황 발생 시 여권이 없으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으므로 여권은 본인이 항시 관리하도록 함

제 목 : K-Move 맞춤형 채용설명회 참가기업 모집

1.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청년인력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K-Move사업의 일환으로 8월 중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맞춤형 채용설명회"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지역 대상으로 동시 개최되며 구체적인 행사일자는 아직 미정으로 기업들의 한국방문 가능시기 등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예정

2. 맞춤형 채용설명회는 외형에 치중했던 채용박람회식의 행사를 탈피하고 월드잡 웹사이트를 통한 해외 구인 · 구직의 연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기업들의 구인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해외진출을 준비해온 구직자들을 엄선하여 매칭시키는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알선시스템입니다.

3. 맞춤형 채용설명회에 대한 기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6.18(수) 자카르타에서 중견기업 및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봉제협의회, 신발협회, 해외건설협회 등을 대상으로 초청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4. 맞춤형 채용설명회는 구인기업 우선 발굴 → 국내 구직자 확보 → 1차 서류전형 및 화상면접 → 맞춤식 최종면접으로 진행되며, 맞춤식 최종면접은 구인기업이 대면면접을 원할 경우, 인사담당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최종면접을 진행하며, 화상면접으로 최종 채용여부를 결정 시 국내면접은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고 한국본사가 있는 경우는 국내 인사담당자가 최종 채용면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번 채용설명회를 통해 국내청년을 최종 채용하거나 , 과거 산업인력공단의 월드잡이나 글로벌 잡 탐방단 프로그램을 통한 채용실적이 있는 기업이 참가할 경우에는 왕복항공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인도네시아의 경우 글로벌 잡 탐방단이 2013. 11월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봉제업체에 3명을 채용시켰음

6. 이번 맞춤형 채용설명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업종, 채용직종, 채용인원, 근무조건(정규직 여부) 및 연봉수준, 지원자격(학력 및 외국어) 등을 명시하여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김용운 고용노동관(mojgokr@naver.com, 전화 021-2967-2555, 내선 1309)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

DYNAMIC KOREA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안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늦어도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체재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처분 받은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단, 원정출산자 제외)

※ 2015.3.31.까지는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국적이탈 시기 제한의 취지>

1. 국적제도를 이용한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국내에 거주하며 활동하다 병역이행 시기가 도래하면 국적을 이탈하는 등 국적제도를 이용한 병역면탈이 용이하게 됩니다.

2. 병역의무의 공정성 ·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국적이탈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유발 및 병역의무부과의 공정성 · 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연기

- 복수국적자라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 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본인 또는 부 · 모가 1년의 기간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 부과

- 국외에서 출생(6세 이전에 출국자 포함)하여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써 병역법 제128조에서 정의하는 "재외국민2세" 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 체재기간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94.1.1. 이후 출생자부터는 18세 이후부터 통산 3년을 초과하여 국내체재한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 자격이 상실되어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 .국외체재-재외동포 국적과 병역의무', 또는 체재국 영사관의 병무담당영사와 국적담당영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 례

차 례 10

이모저모 한인사회 12

조태영대사, 한인뉴스와의 인터뷰
2014 아시아한인회 총연합대회/
제9회 동남아한상대회
2014 옥타 차세대 무역스쿨
2014 한인회 상반기 정기 이사회
재인도네시아 봉제협의회 경영전략 세미나 및 총회
주 아세안 대표부, "2014 한-ASEAN 대화관계 25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KOICA- · 인도네시아 광해실태조사 및 시범 복구 사업 협의의사록 체결
· WFK단원 인도네시아대사예방
· 찌따룽강유역 홍수예경보 시스템 개발 사업
· 수마트라 유료도로 사업 환경영향평가 착수 보고회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엽 배상

Bangka Belitung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동포 사회의 다양한 행사로 분주한 한 달이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없는 듯한 이곳도
어김없이 아이들에겐 방학이 주어지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사회적, 인간적
배려를 맛보게 하는 시간이지요.
저도 정작 직장인이 되기까진
그 꿀맛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젠 이런 아이들이 조금은 아니,
많이 부럽습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46
편집장 홍석영

자연의 벗 그림전시회
재인니 한인 시니어회, 청년회와의 만남
대한 태권도 협회 창립식
aT. Jakarta Fair
제 64주년 6.25 행사 및 북한 인권 사진전
굿네이버스 희망편지 쓰기대회 시상식
한-인니 손편지 친구 맺기
한-인니 문화 연구원, 족자 GKL 예술 단체와 MOU 체결
송재선 2대 이사장 취임/
나사렛 대학교 on MOU 체결
'회상' 전시회
풍경과 사람 (친구) <엄종한>
JIKS 소식

2014 6월 월간 경제 브리핑.....36

기업탐방 <롯데쇼핑에비뉴>.....40

(생활속의 심리학) 미루기의 심리학
<이윤형>.....44

내 마음의 뜰/풍경
<시:이율리/그림:이태복>.....47

7월의 행복에세이 <서미숙>.....48

인도네시아 약용식물 (자무2/JAMU)
<백진협>.....50

Jalan-Jalan Jakarta
(이슬람의5대의무)<사공경>.....54

신성철 칼럼.....58

법률해설/ 인도네시아 사용 의무
<이승민>.....61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64

화 도 소 66

생활정보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있습니다***

조태영대사, 한인뉴스와의 부임인터뷰

<< 집무실에서 만난 조태영 대사

1.재인도네시아 대사로 부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임소감이 어떠하신지요?

한인동포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 온지 이제 한달이 지났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곳이 큰 나라인 만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희망하던 나라로 오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와서 보니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인도네시아 동포사회에 대한 느낌과 기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오기 전에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대해 들은 얘기가 있지만 와서 보니 명불허전입니다. 화목하고 체계적으로 조직된 한인사회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인사회의 역사도 길고 이곳에서의 경제적 기여도도 높은 만큼 한인사회가 자부심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만 이상의 현지인을 고용할 정도면 이곳의 경제에 대단한 기여를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외국인 커뮤니티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처럼 대사관도 발 빠르게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현재인도네시아와의 주요 현안은 무엇인지요? 한인기업 진출의 가속화에 대한 대사관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영토 크기로 보나 인구 규모로 보나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아세아에서 주축이 되는 국가인 만큼 협력의 여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전에 쌓아놓은 한국의 좋은 이미지가 우군으로 작용하리라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에게 많이요구하고 있는 것이 투자입니다. CEPA(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에서도 한국의 더 많은 투자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잠재력이 크고 기회도 많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사관도 그런 업무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인도네시아에서는 차세대들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차세대들에게 한마디 해 주고픈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타 차세대 무역스쿨을 다녀와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차세대 인재를 대상으로 선, 후배 간에 협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차세대는 오히려 지금의 제 나이 정도가 차

세대가 아닐까요?(웃음) 선배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후배에 대한 관심을 후배 양성하는 것으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이고 열정을 갖은 후세대를 보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여러 단체들과의 연계로 상생하는 분위기를 유지시켜가길 바랍니다.

5.대사님의 가족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4인 가족으로 두 명의 딸과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두 딸은 뉴욕과 동경에서 이미 사회인이 되어생활하고 있고, 우리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산가족인 셈이죠.

6.대사님께서 걸어오신 주요 경력을 소개해 주시고,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1981년부터 외무부에서 33년을 근무했습니다. 주이탈리아대사관, 주파키스탄대사관 및 주일본대사관에서 3번에 걸쳐 여러 해 근무하고, 방글라데시의 대사를 역임하고 외교부 대변인으로 활동한 후 이곳으로 왔습니다. 제 경력은 아시아, 특히 일본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2001년 일본에서 근무할 당시, 꽁치어획쿼터규정협정으로 일본 측과 힘든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3개월 간의 집중적인 교섭으로 보람있는 결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해 12월에 타결이 되기까지 꽁치가 먹기 싫었을 정도였습니다.

7.동포들께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은 항상 동포 여러분께 열려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한인여러분들은 대사관의 존재 이유입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긴밀한 협력으로 국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 동포들의 현장에서의 현안을 같이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향한 기대가 큽니다. 그 위상에 걸 맞는 한인사회가 되어 주변을 돌아보고 챙기는 마음으로 인도네시아인들과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날 외교 형태는 정부 대 정부가 아닌 정부 대 현지인으로 공공외교가 일반론이 되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정부가 바로 우리 동포인 것입니다. 저희 대사관은 공공외교의 대열에 동참하는 한인들과 협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본지 조규철 편집인과의 인터뷰 하는 모습

2014 아시아한인회총연합대회 및 제9회 동남아한상대회

'2014 아시아한인회총연합대회 및 제9회 동남아한상대회(대회장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가 7월2일부터 5일까지 자카르타 그랜멜리아 호텔에서 개최됐다.

아시아 한인회총연합회와 동남아한상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에서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재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조태영 대사, 인도네시아 한인회 신기엽회장,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이하 코참)송창근 회장을 비롯하여 박종범 유럽한인총연합회장, 임도재 아프리카중동연합회장 등 아시아 지역의 한인회장단, 동남아 한상 13개국에서 참석하였다. 재외동포재단에서는 김정수 기획이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일, 환영의 밤 행사에서 승은호 회장은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서로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며 "대회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 가슴을 열고 대화하여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기 바란다" 고 개회사를 통해 말했다.
또한 조태영 대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비공식적으로 100여년 전부터 맺어왔다" 며 "해외 한인들과의 네트워크 강화와 차세대 한인리더 양성" 을 당부했다.

3일, 오전에는 아시아 한인회 총연합회가 개최됐다. 승은호 회장의 개회사와 임도재 회장(2014 세계한인회회장대회 공동의장)의 축사로 총회가 시작됐다.

신기엽 회장은 '더불어 사는 세상' 을 슬러건으로 내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를 소개했다. 또한 해외 동포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동포재단과 정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낼 수 있는 발전방향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승은호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의시간에는 정관개정 및 조직개편 등을 통하여 더욱더 발전된 모임이 될 것을 결의하였다.

오후에는 동남아 한상대회 총회를 열어 인도네시아 상공회위소 안광진 부회장의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소개 및 Collaboration을 주제로 발표한 후 한상대회 정보교류를 통한 한인사회의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동남아한상이 아시아한상으로 명칭변경하기로 했고, 승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하기로 결의했다.

4일, 전남대 황상석 교수의 '장보고의 글로벌 경영과 한상의 역할' 에 관하여, 리틀램 박현순 원장의 '인도네시아 기초교육을 밝히는 행복경영' 에 관한 세미나가 있은 후 관광 및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행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환송 만찬이 진행됐다. 만찬식에서는 승은호 회장의 만찬사와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대표, 정한영 중국 상하이 한인회 전임 회장의 축사에 이어 자카르타 한국학교와 밀알학교에 장학금 전달, 골프대회 시상식을 끝으로 모든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2014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총회

< 결정사항 >

1. 아시아 국가 한인회 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국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2015년 대회 개최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결정한다.
3. 승은호 회장 연임으로 결정한다.

2014년 7월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승은호 회장 외 참가자 일동

제9회 동남아한상대회 총회

< 결정사항 >

1. 본 협회의 명칭을 '아시아한상연합회'로 개칭한다.
2. 본 협회는 회원제로 운영한다.
3. 2015년 대회 개최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결정한다.
4. 승은호 회장 연임으로 결정한다.

2014년 7월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아한상연합회 승은호 회장 외 참가자 일동

2014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및 제9회 동남아한상대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재외동포재단에 전달한다

< 결의문 >

1. 해외동포를 위한 신문고 설치를 촉구한다.
2. 대통령직속기구로 해외동포청 설립을 촉구한다.
3. 해외동포의 접근성 용이를 위해 재외동포재단 제주도 이전을 반대한다.

2014년 7월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및 아시아한상연합회 승은호 회장 외 참가자 일동

승은호회장, 아시아총연 및 아시아한상회장 연임
2015아시아 한상대회 개최지 쿠알라룸푸르

2015아시아한인회장총연합회 대회 및 10차 아시아한상대회의 개최지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결정됐다.

이 대회에서 동남아한상연합회의 명칭을 아시아한상연합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아시아한상연합회는 회원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한상대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시아한상연합회는 몽골, 홍콩과 아세안 10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18개국에 설립된 코참(상공회의소) 협의체의 모임이다.

아시아한인연합회 총회와 동남아한상대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처음이다. 참가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 많은 교감을 쌓고 정보교류를 통해 앞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길 바라며, 좋은 인연을 맺고 가는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년 옥타 차세대 무역스쿨

2014년 옥타 차세대 무역스쿨(회장 강희중) 이 Gran Melia 호텔에서 7월 4일부터 6일까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올해 7번째로 진행된 무역스쿨은 차세대 경제 사관 생도 육성을 목표로 매년 50명의 수강생들에게 강연을 하며 총 350명의 한인 청년들이 수료를 했다.

첫째,둘째날, 강희중지회장의 'WORLD OKTA와 GLOBAL NETWORK', 코트라 이장희 부관장의 '창조경제와 무역진흥기관의 역할', 짐모아 이지현 사장의 '무역 실무 개론',이화수 하나부행장의 '인도네시아 대선이 인니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승무역 배응식 법인장의 '땀으로 배우는 현장 실무', 김문환 예총회장의 '인도네시아 역사 문화', 키움증권 이진혁 사장의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현황', 딜로이트 방치영 이사의 '인도네시아 노무관리 전략' 을 주제로 열띤 강의가 있었다. 신기엽 한인회장과 재외동포신문 이형모 대표의 한인청년들을 향한 응원 메세지도 전달하였다.

세째날, 안선근 교수의 '인도네시아 문화 이해와 적응 방법', 유국종 레젤 사장의 '인도네시아 홈쇼핑 시장', 백승래 관세관의 '인도네시아 통관제도 및 유의사항' 에 대한 유익한 내용의 강의들이 이어졌다. 조태영대사의 차세대를 격려하는 말씀을 끝으로 열정이 가득한 모임이 마감되었다.

2014 한인회 상반기 정기 이사회

2014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상반기 이사회가 땅그랑(serpong 소재 BSD)에서 6월18일 한인회 회장단, 자문위원, 이사진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신기엽회장은 인사말에서 “서로 배려하고, 나눔으로 축복받는 한인사회의 새로운 모습을 위해 한인회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화목하게 잘 운영되어 온 것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이런 진취적인 한인사회를 이어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인회가 되겠다. 리더로서 함께 한 시간들이 의미있고 보람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한인사> 편찬을 위한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및 한인사회의 협조를 부탁한다” 고 말한 후, 잠시 얼마 전 타계한 고 장주현자문위원을 회고하는 말도 덧붙였다.

한,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들로 분주하고 활기 넘쳤던 한해를 되돌아 보는 2013년의 활동상황과 결산을 보고하고, 예산 편성안을 통과시켰다.

이사회 전에 열린 친선 골프대회의 시상식을 끝으로 이날의 모임을 마쳤다.

재인도네시아 봉제협의회 경영전략세미나 및 총회

25일(수), 재인도네시아 봉제협회(이하 KOGA, 회장 김종림)는 KOTRA 한.인니 상생협력센터(GKBI 빌딩 1209호)에서 재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대사 조태영), 한인회(회장 신기엽), 봉제협의회 소속 회원사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인도네시아 봉제협의회 경영전략세미나 및 총회'를 개최했다.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체협의회가 주관하고 KOTRA가 협찬한 이번 세미나는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고용의 경직성 심화 등으로 경영난과 경쟁력 저하를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봉제업체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 모색과 최신 경영환경 및 교역여건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고자 마련됐다.

본 세미나에는 김용운 고용노동관, 하노이 무역관 김경돈 과장, 박영식 공사, 백승래 관세관이 이 발표자로 참석하며, 제1세션에서는 "경영환경의 변화와 대응" 이란 주제로 인도네시아 노동동향 및 대응방안과 BPJS 안내 및 K-Move 소개, 베트남 경영환경 및 우리기업의 대응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TPP 추진에 따른 경영전략" 이란 주제를 놓고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진행경과와 TPP 관련 원산지증명 절차 및 유의 사항에 대한 발표하였다.

조태영 대사는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노동시위, 파업 등 어려운 점에 대해 들어 알고 있다.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겠다" 며 "고용 창출하는 한인기업으로써 현지인들과 서로 소통하여 대한민국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바란다" 고 당부하였다.

배도운 전 회장은 "각종 규제법안 등 수출의 최일선에서 수많은 역경을 일치단결하여 헤쳐 나왔다" 며 "대선 이후 노동문제가 어떻게 전개 될지 전망해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KOGA는 신임 회장 및 회장단 인선, 사무국 조직개편, 회칙을 개정하였다. 제25대 KOGA 회장은 GOOD GAYS INDONESIA의 김종림사장이 선임되었다. 또한 세아상역의 홍희준씨가 모범근로자 표창을 받았다.

주아세안대표부, "2014 한-ASEAN 대화관계 25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2014년 한-ASEAN 대화관계 25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6월 24일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주아세안 대표부 백성택 대사를 비롯하여 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CPR) 대사들과 한-ASEAN 사회·문화 관련 전문가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본 세미나는 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가 주최하고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ISEAS/BUFS)과 인도네시아 학술원(PSDR/LIPI)이 공동 주관하였다.

본 세미나는 △한-ASEAN 사회·문화영역 협력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 2015년 출범하게 될 ASEAN 사회·문화 공동체의 의미를 파악하며, △ 한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 간 교류를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본 세미나에서 제기되는 협력방안과 정책과제는 오는 12월 한국에서 개최하는 한-ASEAN 정상회담에 관련 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등 총 6개국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석하며, 제1세션에서는 "ASEAN 사회·문화 공동체의 출범과 한-ASEAN 문화협력" 이란 주제로 한국과 ASEAN측에서 네 명의 전문가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발제와 함께 발전적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한-ASEAN 문화교류와 이주문제" 란 주제를 놓고 한국과 ASEAN의 대표적인 영상문화교류 관련기관 대표자들과 이주문제 관련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섰다. 제3세션에서는 "한-ASEAN 학술교류 및 시민사회 연대" 라는 주제로 한국과 ASEAN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와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발표하였다.

그간 한국과 아세안은 경제 분야 및 정치안보 분야 위주로 협력방안을 논의해왔는바, 대화관계 25주년인 금년을 계기로 사회·문화 분야에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앞으로는 협력분야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ASEAN은 동남아지역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된 연합체로서 2015년 경제공동체 출범을 준비 중에 있다. ASEAN 경제공동체의 출범은 인구 6.3억 명, GDP 2.3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의 형성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 매년 5%가 넘는 경제성장률 등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ASEAN은 이미 중국에 이어 한국에게는 제2의 교역상대국이며, 제1의 해외투자대상 지역이고, 중동에 이어 제2의 건설수주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12월 한국과 ASEAN 10개국 정상들은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에서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KOICA, '인도네시아 광해실태조사 및 시범복구사업' 협의의사록 체결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인도네시아 광산지역의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를 위한 '인도네시아 광해실태조사 및 시범복구사업(2014~2016, 320만 불)'을 지원키로 하고, 2014년 6월 20일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자원부(MEMR)와 동 사업에 대한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s)에 서명하였다.

광물에너지자원부에서 개최한 이번 서명식은 광물석탄청 Sukhyar 국장, 기술환경부 Bambang 과장, 광물석탄연구소 Retno Damayanti 소장, KOICA 김병관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및 관계자 총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KOICA 김병관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은 이 사업이 광물석탄청과 협력하는 첫 걸음으로써 상호협력을 통해 자원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정립하여 천연자원에 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이룩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Sukhyar 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한국의 선진 기술 전수 및 경험 공유를 통해 광산업의 문제를 개선하고 선진 기술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협력에 대한 기대의 뜻을 비쳤다.

금번 사업은 광해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관련 장비 및 인력을 양성하여 광산주변 환경오염 피해 방지와 경감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해 유형 파악을 통한 적절한 예방 모델 개발 및 적용은 광산피해 사후 복원에 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향후 석탄 채굴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주재국 정부의 자체역량을 제고하고 타 지역으로 확대적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KOICA 신규 WFK(월드 프렌즈 코리아) 봉사단원 인도네시아 대사 예방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이 파견한 신규 봉사단원 5명이 지난 6월 16일 자카르타에 도착하여, 18일 오전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예방하였다.

조태영 대사는 개발협력이 개도국 국민들의 빈곤 퇴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봉사란 활동이 국격을 높이고 개도국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귀중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설명하며 신임 봉사단원을 격려했다.

이번 파견된 KOICA 봉사단원들은 2년간 자바 및 깔리만딴 지역으로 각각 파견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단원들은 공예, 미용, 조리 분야의 직업교육과 한국어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한-인니 관계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에는 총 47명의 KOICA 봉사단원들이 교육,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KOICA, '찌따룸강유역 홍수예경보시스템 개발사업' 협의의사록 체결

KOICA는 (이사장 김영목)은 인도네시아 찌따룸강 유역의 홍수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찌따룸강 유역 홍수예경보시스템 개발사업(2014~2016, 500만불)' 을 지원키로 하고, 2014년 5월 26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MoPW)와 동 사업에 대한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s)에 서명하였다.

본 사업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가 수자원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방안이 요구되는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우리나라의 노하우 및 선진기술에 대한 공유를 희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2013년 사전타당성 조사 및 2014년 실시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방향 및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s)을 체결하고, 우리 정부는 향후 2016년까지 총 500만불의 예산으로 △ 홍수예경보시스템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 △ 홍수예보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 △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자재 지원, △ 사업 지원 · 수행 ·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가 파견, △ 기술이전 및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 교육 및 초청 연수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KOICA, 수마트라 유료도로사업 환경영향평가 착수보고회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지난 6월 25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에서 '수마트라 유료도로사업 환경영향평가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행사는 인니 측 공공사업부의 Maulidya Indah Junica 환경도로안전 부장, Didik Rudjito 국제협력 과장 , 그리고 우리 측 박종민 KOICA 부소장, 배동찬 한국종합기술 상무, 김윤복 한국도로공사 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상부구간인 두마이-뜨빙띵기(350km)와 하부구간인 바까우흐니-빨렘방(210km)의 유료도로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양측의 질의응답 및 이해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환경영향평가는 수마트라 유료도로 제 1구간 타당성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KOICA는 금번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속도로 시공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툴 생태 교육 모델숲 체험 자카르타 예술대학 그림 전시회 개최

-숲과 자연을 대상으로 작품 활동한 "자연의 벗" 그림 전시회-

한-인니 산림센터(센터장 남성현)와 자카르타 예술대학(Institut Kesenian Jakarta)이 공동으로 숲과 자연을 주제로 한 그림 전시회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에서 "자연의 벗(Sahabat Alam)"이라는 테마로 2014년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4월 30일 한-인 산림센터 초청으로 센툴 생태 교육 모델숲에서 자카르타 예술대학교 학생 · 교수 50명이 참여하여 양국간 산림협력 및 숲 체험을 통하여 유화, 수채화 등 현장에서 자유롭게 작품 활동한 것을 전시한 것이다.

남성현 한-인니 산림센터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숲을 기반으로양국간 우호증진을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한국의 우수한 산림휴양 문화를 인도네시아에 접목하여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인니 산림센터는 양국간 산림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센툴 생태 교육 모델숲을 조성하여 인도네시아 거주하는 한국 학생, 진출기업 직원 및 인도네시아 초등학생, 대학생 등으로 모델숲에 초청하여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사례 소개 및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재인니한인 老장과 靑장이 만났다

- 재인도네시아 한인 시니어회, 재인도네시아 한인 청년회 주관
- 인도네시아 드림의 이모저모 진솔한 이야기 나눠

인도네시아 한인 원로와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 인도네시아 드림에 대한 지름길을 안내했다.

지난 6월 7일 라우망운 골프장에서 골프회동에 이어서 끌라빠가딩 가효식당에서 가진 老장과 靑장 회동은 아버지와 자녀같은 모임으로 정이 넘쳤다.

재인도네시아 한인 시니어회 (회장 이현상)과 재인도네시아 한인 청년회 (회장 김종헌)이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한인진출 70년 역사와 본격적인 한인기업들이 진출이 시작된 1960-70년대 원로들의 당시 인도네시아 진출 상황 설명과 청년들의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모임은 대사관 이인호 총영사를 비롯하여 , 김우재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신기엽 한인회장 , 이현상 시니어 회장 및 회원, 김종헌 청년회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1세대와 2세가 같이 참석하는 자리로 김우재 회장과 장남 김종헌, 이진호 회장과 자녀 이지완씨가 참석해 환영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종헌 청년회 회장은 "한인원로와 2세간에 만남을 통해 좋은 충고와 경험담은 너무나 값진 것이고, 앞으로 종종 인사 드리고 찾아 뵙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 태권도 협회 창립식

13일,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대한 태권도협회(회장 방진학)가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JIKS 강당에서 열린 이 날 행사에는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회장 양영연), 대한민국 태권도 대표단 (단장 신천일), 재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대사 조태영), 한인회 (회장 신기엽) 등 한인사회 각 협회 회장단 및 관계자 50여명이 모여 태권도협회 창립식을 선언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진학 회장은 창립사를 통하여 "초대회장으로 임명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주변에 여러분들이 있어 든든하다" 며 "이제부터는 태권도 선수 육성에 힘쓰며 현지인들과의 교류에 최선을 다하고 한국의 위상을 알리는 모범적인 협회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양영연 회장은 "태권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인도네시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신기엽 한인회 회장은 "태권도의 진정한 매력을 뽐내고, 즐기는 자리이기를 바란다" 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한인사회의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 고 부탁하였다.

태권도협회는 한국 대사관과 한인회에 도복 증정식을 가졌다. 또한 수상식 및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기원, 대구교육청 꿈나무, 대구태권도협회 대표 시범단의 멋진 품새와 흥겨우면서도 절제된 동작의 태권체조를 시범보임으로써 큰 박수와 아낌없는 칭찬을 받았다.

"aT, Jakarta Fair"

할랄인증 식품 홍보관, 비빔밥 만들기, 한식시식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인구 2억 5천만명의 이슬람권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오는 6월 6일부터 7월 6일까지 Jakarta International Expo(JIExpo)에서 개최되는 "2014 Jakarta Fair" 에 참석했다. "Jakarta Fair" 는 매년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Expo로 '13년에는 전자, 패션, 기계, 식품 등 약 2,600여 업체가 참여하고 행사 기간 누적 약 480만 명이 행사장을 방문하는 등 한국 식품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기에는 최적의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6월6일 K-FOOD존에서의 오프닝행사 "비빔밥 퍼포먼스"

aT는 한국 할랄 인증 식품 홍보관, 한국 식품 판매관, 한식 홍보관 등 150㎡ 규모로 참가하여, 행사 기간 주말에는 대형 비빔밥 만들기 이벤트, 떡볶이, 김치 등 한식 시식행사, 사물 놀이패 공연, 한국 전통의상 사진촬영 이벤트, 참여업체 제품 시식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하여 동 행사를 방문하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라면류, 인삼류, 음료류, 제과류 등 다양한 한국 식품과 더불어 할랄식품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약 30여 품목의 한국 할랄 인증 제품들도 선보였다.

aT는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을 위하여 HERO, Hypermart, Lotte Mart, Ranck Market 등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한국 식품 판촉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 무슬림 소비 시장인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한 한국 할랄 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기구인 MUI로부터 한국 할랄 인증(KMF)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한국 할랄인증(KMF)에 대한 현지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제64주년 6.25 행사 및 북한 인권 사진전

19일,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지부(회장 현상범)는 6.25전쟁의 의미와 희생자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제64주년 6,25 행사 및 북한 인권 사진전' 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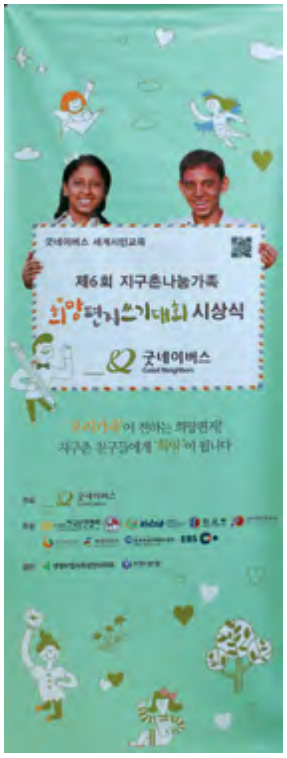
JIKS 나래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국 자유총연맹(회장 현상범), 대사관(대사 조태영), 한인회(회장 신기엽), 민주 평화통일 동남아 남부 협의회(회장 박동희)등 학생 300여명이 참석했다.

현 상범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유총연맹은 나라사랑, 한글사랑, 자연사랑, 한빛사랑 등 4가지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늘의 행사를 통하여 조국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나라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 며 "어떻게 사는 것이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에게 보답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인회 신기엽 회장은 "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 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세계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고 학생들에게 당부하였다.

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고단했던 삶의 한 자락을 엿보게 하는 사진전,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용사를 기리는 추모행사에 이어 JIKS 중등 대표 이민영(9학년), 손경락(9학년), 글러벌 리더 한국 대학생 대표 김현중(UI), 글러벌 리더 인도네시아 대학생 대표 Mardiana safitri양의 3분 스피치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전쟁의 애환과 아픔을 되새기고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는 발발하지 않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기념행사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사진전 감상문 공모하였으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총 6명에게 시상할 예정이다.



굿네이버스, 제6회 지구촌나눔가족, 희망편지쓰기대회' 시상식 개최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박동철 지부장)는 27일(금)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나래홀에서 '제 6회 지구촌나눔가족, 희망편지쓰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한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굿네이버스의 '지구촌나눔가족, 희망 편지쓰기대회' 는 가정의달, 5월을 맞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교육용 영상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구촌 이웃의 삶을 돌아보고 이해함과 동시에 '희망편지' 를 작성하여, 나눔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세계시민 양성을 위해 진행되었던 대회였다.

참가한 학생들은 영상을 통해 방글라데시 12살 어린 소년가장 '아리프' 를 만나고, 가족과 함께 희망편지를 쓰며 지구촌에 희망을 전했다. "하늘로 올라가면 온세상이 파랗게 보일 것 같다" 는 아리프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에 가야 하지만 어린나이에 할머니와 동생을 위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린가장으로 매일 인력시장을 찾아 거친 공사일을 해야만 하는 아동이다.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가 주최하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의 후원으로 지난 5월 초부터 1달간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350여 명의 아동들이 참여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시상식에서는 대상으로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2학년 김도엽(초등학교 저학년부분), 6학년 왕한(초등학교 고학년부분), 9학년 김혜인(중학교부분), 최우수상으로는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1학년 홍지우(초등학교 저학년부분), 6학년 우종하(초등학교 고학년부분), 9학년 강혜수(중학교부분), 우수상에는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1학년 김은찬(초등학교 저학년부분), 6학년 현은진(초등학교 고학년부분), 7학년 권혜준(중학교 부분) 등 총 9명이 수상 하였으며, 이번 희망편지쓰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장에 감사장이 수여됐다. 수상 아동들에게는 부상으로 Kinokuniya의 Voucher가 전달됐다.

대상을 수상한 김도엽(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2학년)군은 "커서 서로 꿈을 이뤄 훌륭한 사람이 된 후에 만나자, 화이팅!"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아리프에게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 아동과 학부모, 참여 유치원 교사와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한인미술협회 관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시상식 후에는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 후원아동의 공연이 준비되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국-인도네시아 어린이 편지로 만나다"

한*인니문화연구원 편지 교류 주선

지난 6월 11일, 충북 옥천 삼양초등학교 6학년 교실, 아이들의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아이들 손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편지가 들려있다. 지난달 15일 자카르타 오바마 스쿨로 친구하자는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한 달 만에 도착한 것이다. 해외펜팔이 처음인 아이들만큼이나 지켜보는 선생님도 기뻤다. 유창하지는 못해도 영어로 편지를 주고받는 아이들이 대견하고 뿌듯하다.

충북 5개 초등학교와 인도네시아 초등학교의 단체 펜팔은 청주MBC가 제안하고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은 오바마 학교를 추천하여 가교역할을 함에 성사되었다. 청주 MBC는 '아세안은 내 친구' 라는 주제로 오는 8월 9일~13일 동안 이들 5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탐방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한*인니문화연구원이 현지 진행을 맡으면서 오바마 학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편지 한장으로 더욱 가까워진 두 나라 친구들은 오는 8월 직접 만난다. 충청북도 초등학교 탐방단이 인도네시아 방문기간에 오바마 학교를 찾아 교류할 예정이어서 펜팔 친구를 직접 만날 생각에 아이들은 또 한 번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 (청주 MBC 신민아 기자)

오바마가 다닌 멘뗑 제 1초등학교(이하 오바마 학교) 학생들과 충북 5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편지로 교류한다. 한*인니문화연구원이 청주 MBC 방송과 협력하여 주선하게 되었다. 본 연구원은 3월에 오바마 학교 교장 선생님께 한국의 어린이들과 펜팔 친구 맺기를 제안했고 오바마 학교 측은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 그 뒤 몇 차례 더 방문하여 '아세안은 내 친구' 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바마 학교 측에서는 8월에 만날 때는 환영의 뜻으로 인니전통 춤을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한*인니 연구원은 5월 28일 한국에서 온 편지157통을 오바마 학교에 전달했고 일주일 뒤인 6월 4일 오바마 학교에서 이에 대한 답장을 받았다. 편지에는 그림과 함께 간단한 선물도 들어 있었다. 그 후 개인적으로 몇 차례의 편지교류가 있었고, 드디어 8월에 한국과 인니 어린이들 80여명은 직접 만나게 된다.

송재선 한*인니문화연구원 이사장은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인 삐뚤삐뚤한 손글씨로 펜친구를 맺는다는 것은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다. 매년 이 편지로 친구맺기 프로그램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교장,교감선생님께 한국 어린이들의 편지 전달

한*인니 문화연구원, 족자GKL 예술단체와 MOU 체결

한*인니 문화연구원과 그리야 까르사 루후르(Griya Karsa Luhur) 족자카르타 예술단체가 6월 5일 한*인니 문화 연구원 (한인회관 건물 내) MOU를 체결했다.

이날 사공경 한인 문화연구원장과 GKL 족자카르타 예술단체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문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의미를 깨닫고 문화 교류를 통해 상생의 길을 도모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한인니 문화연구원과 그리야 까리사 루흐르 족자카르타 예술단체간 문화행사와 세계 시민 교육 캠페인을 전개할 것과 서로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만남을 통해 문화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GKL 족자카르타 예술단체의 로쏘 회장은 족자카르타 크라톤 왕궁의 무용수이자 천연염색가로 널리 알려진 인도네시아 전통 예술가다.

앞으로 두 단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화예술 교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더욱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협약서를 체결한 후 로쏘 회장은 직접 작곡한 전통음악에 맞춰 바틱천을 소품으로한 족자 전통 춤사위로 자축하였다.

연구원은 고문 외 임원을 아래와 같이 추대하였다.(가나다순)

고문: 김문환(문예총 회장), 박동희 (평통회장), 서영율(PT. PRATAMA 회장), 신기엽(한인회장), 양영연(대한체육회장)

초대 이 사 장: 김상태 (전이사장, SMS 그룹대표)

이사장: 송재선 (PT. PUTRA HANKUK 대표, 인도네시아 수석협회 회장)

홍보이사: 김정윤(교민세계), 신성철(데일리인도네시아), 최석일 (인도웹), 홍석영 (한인뉴스 편집장)

세월호관련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

○ 세월호 참사관련 유병언 및 유대균 부자가 특경법위반으로 전국에 지명수배 되었으나 도주하여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에서는 해외로 도피하였을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각 공관에서도 동포들을 상대로 공개수배를 하오니 소재를 아시는 분은 대사관 영사과(정진관 영사)로 제보를 바랍니다.

○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한*인니 문화연구원의 새로운 출발

한인회 특별부로 소속, 송재선 2대 이사장 취임
나사렛대학교와 MOU 체결

한*인니 문화연구원은 신기엽 한인회장님의 인가를 받아 한인회의 특별부로 소속되었다. 앞으로 한인회의 활동에 큰 보탬이 되는 단체로 거듭나길 소망해본다. 본 연구원의 고문을 맡아주신 한인회장님께서는 "연구원은 그동안 밟아 온 독자적인 빛을 잃지 않으면서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문화예술 교류에 더욱 박차를 가했으면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단체들과 활발한 교류를 기대합니다." 고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 이에 앞서 본 연구원이 코리아센터에 새로운 둥지를 틀면서 송재선 PT. PUTRA HANKUK 대표이사, 인도네시아 수석협회 회장을 2대 이사장으로 모시게 되었다. 6월 3일(화), 연구원의 새 출발을 알리는 이사장님의 취임식을 가졌다. 그 동안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문화적, 인적교류에 힘써 왔던 한*인니 문화연구원은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지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부족하여 더 많은 오해와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인도네시아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각기 다른 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왔다. 신임 송재선 이사장님은 취임사에서 "한*인니문화 연구원은 문화 탐방과 열린 강좌, 인터넷 공모전 등을 통해 소중한 소통의 길을 더욱 발전시키고, 한인회 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함께 왕성한 활동으로 인니와 문화소통의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한국간의 문화교류에 큰 밑바탕이 될 미래의 인재를 키운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학들과도 활발한 문화적,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또한 고문과 이사진에 대해, 신기엽 한인회장과 송재선 이사장은 "현재 고문단과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문화를 공유하는 활동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한*인니문화연구원에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3일 취임식과 더불어 한국 천안의 나사렛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유학생 유치, 인니어와 한국어 교육, 인턴학생 교류 등의 활동을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원 임원들과 손님들을 모시고 자카르타 예술학교 (INSTITUTE KESENIAN JAKARTA)에서 인도네시아 전통음악을 가르치시는 HANAPI 교수 연주 팀의 축하 연주를 들으면서 소박하고 따뜻한 자축 공연도 함께 하였다. 브따위 문화인 택얀(Tekhyan)과 근당(Gendang) 악기로 엇박자의 독특한 아름다운 리듬감을 가진 흥겨운 곡으로 연주 하였다.

이 행사는 한인회 관계자, 나사렛대학 서정석 교수, ANK 글로벌 조지훈대표, KT&G 어학당 안대영 학당장, 석진용 목사님 외, 한*인니문화원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나삐 교수가 연주했던 전통민요 Si Jali-jali(Betawi)의 의미처럼 본 연구원도 열심히 노력해서 큰 수확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오리라 기대해본다.

(김현미 연구원 수석팀장)

원장 : 사공경 부원장: 채인숙
대외협력위원장: 남기인
수석팀장 : 박선이(문화탐방) /정윤희(정보 홍보) /김현미(열린강좌) /조연숙, 최미리, 안미경(지원교류)
팀장 : 최형욱, 유정은, 박윤정, 박희승, 최유미, 전영민
문학상 심사위원 : 박정자, 서미숙 (인터넷공모전)
교육담당 : ADAM, 유정은, 조은숙,

재인니 한인 미술협회 "회상" 전시회

지난 7월 1일 오후4시에 Cikarang Jababeka 지역에 위치한 Java Palace Hotel Gallery에서 한인 미술 협회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10월에 있을 한인 미술 협회 정기 전시회를 앞두고,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12 회원들의 작품들을 모아 Cikarang지역 교민들을 위한 Special Event로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 상습적인 교통 체증으로 인해 쉽게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각 종 문화 행사를 접하지 못하였던 지역 교민들을 위한 행사로, 36점의 작품들이7월 1일부터 8월 초순까지 한 달 간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회 참가 작가 명단(김선영,김선옥, 김현경, 박미숙, 박정자, 변희경, 이수은, 이영선, 이은수, 이춘희, 조영은, 한송이)

JIKS, 특수학급 재학생 대상 산업체 현장 실습 실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교장 김승익)는 특수학급 재학학생들의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산업체 현장 실습을 실시했다.
CJ인도네시아(총괄대표 손용)의 베이커리 브랜드인 뚜레쥬르와 연계한 금번 산업체 현장실습은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총 5일 일정으로 JIKS중등과정 내 특수학급 재학생 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자카르타에 위치한 뚜레쥬르 서플라이 센터로 출근해 제과·제빵 상품 포장 업무를 수행했고, 원활하고 안전한 현장 실습을 위해 JIKS 교사 1명이 실습 현장에 동행해 출퇴근 및 직무 지도를 실시하였다.
특수학급 학생들이 본교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직접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금번 산업체 현장 실습의 가장 큰 목적이며, 이와 같은 실습을 통해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 직업 생활을 영위할 때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 기능 및 소양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IKS 특수학급 윤난희 교사는 "학생들이 실무 현장에 배치되고 출퇴근하며 본인들의 업무 결과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직장인으로서의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고, 향후 실제 직업현장에 적합한 직장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친구

Bromo

본인 에게는 그저 선선한 날씨로 느껴지지만 현지인 두친구는 많이 추웠나보네요
천 하나로 감싸안고 있는 두 친구의 모습이 흥미롭고 재미있어 보입니다.
두사람은 다툼 없는 "절친" 인듯 싶네요

사진과 글 **엄 종 한** 한인뉴스편집위원

JIKS

제2회 자카르타 청소년 감동캠프, JIKS 반딧불이관에서 열려

지난 2014년 5월 29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반딧불이관에서 제 2 기 청소년 감동캠프가 열렸다. 이 행사는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와 JIKS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총 23가정, 23명의 아버지와 35명의 자녀들이 참석하였다. 여기에는 JIKS 학생들의 가정 뿐 아니라 타 학교에 재학중인 한인 가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캠프는 김호창 (한국 두란노 아버지학교 이사) 씨가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함께 어울려 웃고 즐기는 레크레이션을 시작으로 , 분임장 선출과 구호 만들기,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를 상징적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 아버지와 자녀가 헤어져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는 시간,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나누는 시간, 세족식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웃으며 즐기던 분위기로 시작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는데, 감동과 눈물, 기쁨과 새로운 다짐의 분위기로 무르익어 갔다.

바쁘고 지친 아버지들, 아이들과 하루 10분도 대화하기 어려운 이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함께 놀고 대화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한 것 같았다.

행사를 마무리 할 즈음에 남긴 아버지들의 소감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눈에 뜨인다. “극도로 예민하고 민감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혼란스러웠는데 이 시기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꾸준한 관심과 격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 감동캠프를 통해서 아이와 아버지의 관계가 돈독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아내와의 사랑도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좋은 아버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의 소감문들도 아버지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앞으로의 다짐들로 가득했다. “아빠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발을 만졌는데 아빠의 발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거칠어서 놀랐다” “가족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아빠의 말씀을 더 이상 잔소리로만 듣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했다” “장차 나도 아버지가 될 텐데 아버지가 되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되었다”

JIKS 김승익 교장은 학교의 교실교육에서 채울 수 없는 더 중요한 부분들이 이 캠프를 통해 채워지는 것 같다며, “내년에는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서 청소년 감동캠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는 제안을 하였다.

본 캠프 레크레이션에는 황금자 JIKS 초등 선생님, 청소년 강좌에 이후형 인니 아버지학교 지부장 등이 진행을 도왔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우자’ 는 슬로건으로 봉사하는 아버지들의 모임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를 세우는 운동’ 을 전개하고 있다.

조태영 신임 대사,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방문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조태영 신임 대사가 2014년 6월 20일(금)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교장 김승익)를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일정은 학교 시설 현황을 둘러보면서 교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학교 업무보고 및 현안과제 청취, 중·고교생 대상 특강, 교직원과의 오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학교장의 브리핑으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해외 한국학교로서의 특성을 살린 글로컬 교육과정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고, 현안과제에서는 대사관 부설학교로의 전환, 매점 개선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 기숙사 건립 중 · 장기 추진 등이 논의 되었다.

글로컬(Gloc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서, 글로컬 교육과정은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국제학교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축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이다. 한국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국어, 한국사, 전통 가치관·문화 등의 뿌리교육을 기반으로 하되,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영어 활용 능력 및 리더십을 키우는 글로벌 교육, 마지막으로 미래 인도네시아·동남아시아 지역 경제·문화교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인니어와 인니문화교육을 강조하는 로컬교육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이다.

신임 대사의 특강은 나래홀에서 JIKS 중·고등학생(7학년~11학년) 400여명을 대상으로 약 30여 분간 실시되었다.

특강은 신임대사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 중에서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세상은 교실보다 넓다' 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마음을 큰 세상에 맞추어 넓게 가져야 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많아야 나라나 세상이 잘 된다' 고 언급하였다. 더욱이 '눈앞의 이득이나 물질적 욕심에만 마음을 빼앗기기엔 인생의 시간이 너무나 짧고 소중하다' 고 강조하였다.

특히, 방글라데시에서 근무할 때 목격한 현지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늘 봉사하는 자세로 생활해야 한다.' 고 조언 하였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해내는 사람이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 이라고 하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크게 생각하고 앞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는 말로 특강을 마무리 하였다.

2014 년 6월
월간 경제 브리핑

금 값된 아라비카 원두덕에 스타벅스 커피가격 뛴다

스타벅스 인도네시아 지점의 커피가격이 지난해 말에 이어 4월 1일 또 올랐다. 이미 눈치 챈 소비자들도 있겠지만 스타벅스 커피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2천~4천 루피아나 더 올랐다.

23일 자카르타 스나얀 F(X) 쇼핑몰 내 스타벅스의 바리스타 사라 와르다니씨는 "매년 말 스타벅스가 가격을 올리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가격을 올렸다"며 "tall 사이즈 까페라떼가 한 잔 당 2만 9천루피아에서 3만 3천 루피아로 오르고, grande사이즈 가격은 3만 2천루피아에서 3만 6천 루피아로 올랐다"고 밝혔다. 한편 Venti 사이즈(591밀리리터)의 카페라떼 가격은 3만 5천루피아에서 3만 9천루피아로 올랐다. 스타벅스의 카페라떼 가격만 4천루피아(13%인상)가 오른 것이다. 스타벅스 음료 가격은 이제 tall 사이즈가 2만 1천~4만 4천 루피아 대, grande사이즈는 2만 3천~4만 8천 루피아 대, Venti 사이즈는 2만 5천~4만 7천 루피아대다. 매장에서 함께 판매하는 쿠키나 케이크의 가격도 6천 루피아 이하 선에서 덩달아 올랐다. 고객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스타벅스는 지난 4월 '프리 업사이즈' 프로모션 기간을 가졌다. 이와 같은 스타벅스의 가격인상 정책은 브라질 원두 생산량 하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내 커피 가격이 계속 올라 올해 7월 중순 경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아라비카 커피 원두 선물 가격이 올들어 90% 가까이 치솟으며 2년여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세계 최대 커피 산지 브라질이 50년만에 최악의 가뭄에 직면해 작황이 부진할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세계 커피 원두 생산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다. 크레이그 러셀 스타벅스 커피부문 대표는 지난 4월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커피 원두값 급등으로 스타벅스도 지난 4~5주에 걸쳐 커피 원두 구매를 조금씩 줄였고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러셀 대표는 "최근 커피 콩 수확이 시작됐기 때문에 작황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현재까지는 커피 판매 가격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러셀 대표는 또 "스타벅스는 브라질 다음으로 아라비카 원두를 많이 생산하는 콜럼비아로부터 구매량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피 원두 트레이더 등을 포함해 관련 업계는 올해 브라질산(産) 커피 원두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브라질 국립커피위원회는 예년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자카르타 정경일보
Jakarta Biz Daily
Rasuna Office Tower 15th Fl 1501A
Jl. Jend. Gatot Subroto Kav. 32-34
Jakarta Selatan 12950

수마트라섬의 입구 메단, 新공항 건설로 개발촉진

수마트라 섬 최대 도시, 북부 수마트라주 메단시의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메단시 교외에 꾸알라나무 신 국제공항이 작년에 개항한 것을 배경으로, 국내 첫 공항철도 주변에 도로, 항만, 부동산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와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살린 인도네시아 서부의 입구로서 메단은 앞으로도 매우 높은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메단시의 인구는 212만 명으로 북부 수마트라주 전체 인구의 약 16%가 거주한다. 메단시 교외의 델리 스르당군에 꾸알라나무 공항이 개항한 것은 작년 7월이다. 시내 중심부에 있던 뿔로니아 공항으로부터 기능을 전면 이관받았다. 꾸알라나무 공항은 3,750m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객 터미널의 취급 능력은 연간 800만 명이다. 14개 항공사가 하루 250개 편을 꾸알라나무 공항에 이착륙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7월~12월의 여객수는 805만 명에 달해 개항한 뒤 1년도 채 안돼 연간 여객처리능력을 초과했다. 이 때문에 공항을 운영하는 국영 앙까사 뿌라2는 확장공사를 계획했다. 제2기 공사는 2016년 초까지 입찰을 실시한다. 제3기가 끝나는 2023년까지의 꾸알라나무 공항의 처리능력을 2,20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신공항에서 메단 시내까지는 인도네시아 최초 공항철도를 건설해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30~45분에 갈 수 있도록 연결한다. 공항 철도를 달리는 기차는 한국제로 현재 하루 40회 왕복으로 운행하고 있다. 메단시의 지방개발 기획국에 따르면 기존 노선은 단선구간이 많아, 고가노선 도입과 복선화로 수송 능력을 크게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단시와 주변지역의 연결성을 촉진하는 일환으로, 도로 인프라의 정비도 빼놓을 수 없다. 고속도로에서는 메단~쿠알라나무 공항(길이 60km)에 더해, 남동의 뜨빙띵기시까지 연결하고, 메단과 인접한 빈자이시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공항 인근 땅값 4배 뛰어

꾸알라나무 신공항의 주변지역 개발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호텔과 창고, 주택 등을 건설하려는 개발자가 토지 취득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공항주변의 지가는 2~3년 전과 비교해 4배로 상승한 곳도 있다. 한편, 구 뿔로니아 공항 주변에는 건축물 높이제한이 철폐돼 앞으로 메단 시내에서 수직형 건축물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메단역 앞에는 상업시설과 사무빌딩 등으로 구성된 슈퍼블럭이 건설 중이며, 부동산개발회사 아궁 뽀도모로는 50층짜리 고층빌딩을 포함한 슈퍼블럭 개발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메단시 지방개발기획국에 따르면 도심부라는 좋은 입지조건을 살려, 뿔로니아 공항의 주변지역에 중앙상업지구(CBD)를 개발하는 계획도 있다. 리뽀그룹은 곧 12층짜리 복합시설을 개장할 예정이다.

자카르타주, 보유대수별 자동차세 누진과세 인상안 추진

5개 정당 개정안 지지… "동일 주소지별 보유대수 기준 과세해야" 지적도

자카르타특별주의회에서 자동차세(PKB, Pajak Kendaraan Bermotor)를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지지가 많아지고 있다. 각 정당들은 세수 증가분을 대중교통의 정비와 교통정체 해소에 투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자동차(2륜, 4륜)세 개정안은 보유대수별 자동차세 누진과세를 1대는 1.5%에서 2%로, 두 번째 차량에는 2%에서 4%로, 세 번째 차량에는 2.5%에서 6%로, 네 번째 차량에는 4%에서 10%로 각각 올린다고 되어 있다.

현지 비즈니스인도네시아 26일자에 따르면 주의회 본회의가 열린 24일 투쟁민주당(PDIP)의 메리 의원은 개정안에 찬성하며 "개인 명의의 차량 보유 대수를 제한해야 한다. 그래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정의당(PKS)의 숩끼 의원은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납세자를 꼼꼼히 파악해 과세누락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주소지에서 명의가 다른 차량이 있다면 이 차량에도 누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에 동의의사를 표한 정당은 민주당, 투쟁민주당, 그린드라당, 복지정의당, 골까르당이다. 반면 이에 반대한 정당은 통일개발당(PPP)이었다. 이완 자야디 PPP당원은 "자카르타의 교통체증은 자동차세 인상으로 로 해결할 수 없다"라며 "차량 이용 연령제한과 동일 주소에서의 차량보유대수 규제가 더 실효성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자동차협회(GAIKINDO)의 종끼 수기아르또 대표는 "자카르타주정부의 자동차세 인상안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어차피 첫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판매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수끼 주지사대행은 "조례 개정은 교통 정체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개정안이 가결되면 자동차세수는 작년의 4조 6,000억 루피아에서 6조 4,100억 루피아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도 밝혔다. 그는 또 "2013년 자카르타주 차량(자동차, 오토바이)대수는 478만대로 자동차 세수는 4조 6천억 루피아였다. 올해 자동차 세수는 6조 4,100억 루피아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2013년도 자카르타주 자동차 세수는 전체 주 세수 23조 3,600억 루피아에서 50.38%나 차지했다.

자카르타 경제일보
Jakarta Biz Daily
Plaza Office Tower 15th Fl 1501A
Jl. Jend. Gatot Subroto Kav. 32-34
Jakarta Selatan 12950

인니 중앙銀, 내년까지 환율 1만 2천 루피아선 시사

美 연준 테이퍼링 시작하면 내년 말 12,800선까지 추락 가능성도

<Fed> <양적완화(QE)규모 축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루피아화 환율이 적어도 2015년 말까지 달러 당 12,000루피아 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고 있는데다 이라크 정정 불안 등이 최근 부각되며 루피아/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 25일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의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 청문회에서 아구스 마르또와르도요 BI 총재는 "루피아-달러 환율이 내년까지 11,900~12,100 루피아 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혔다. 그는 "미 연준이 자산매입 프로그램 종료를 기준으로 2015년 중반 이후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시장이 영향을 받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구스 BI 총재는 "매년 중반에는 배당금 송금, 해외 차관 상황 등으로 기업들의 외화 수요가 증가하는데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 대선, 유가불안 등이 겹치며 루피아화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확산했다" 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년 하반기 인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루피아화 환율이 내년 상반기에 12,250 선으로 떨어지고, 내년 연말에는 12,800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이화수 부행장은 19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선이 끝나면 선거 직전보다는 달러-루피아화 환율이 단기적차원에서 일단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권의 정책방향이 발표된 뒤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24시간 잠 안자는 트랜스자카르타

밤이 찾아온 자카르타 수디르만 대로에서 2일 제 1번(블록M~하르모니) 노선을 지나는 트랜스자카르타 버스가 승객들을 태우고 있다. 트랜스자카르타는 6월 1일부터 제 1구간, 제 3구간(깔리데레스-하르모니), 제 7구간(깜뿡 람부딴-깜뿡 믈라유), 제 8구간(르박 불루스-하르모니), 제 9구간(쁠루잇-삐낭 란띠)에 우선적으로 24시간 운행 버스를 도입했다. 사진=아딧야(Aditya)

7월 ERP 시스템 시범 적용

자카르타 스나얀 지역에 12일 도로요금자동징수시스템(ERP) 시범 프로젝트를 위한 공사가 진행중이다. 자카르타주정부는 오는 7월부터 수디르만 대로 - 땀린 대로에 ERP를 시범 실시한다. ERP시스템은 4륜 개인차량에만 적용된다. ERP Zone으로 지정된 도로를 지날 때 차량에 부착된 기기가 이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도로이용료가 계산되는 방식이다 사진=아딧야(Aditya)

롯데쇼핑 애비뉴 오픈 1주년

서창석 법인장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4년6월 22일 인도네시아 1호점인 '롯데쇼핑애비뉴(LOVE)'오픈 1주년을 맞았다.

롯데애비뉴는 롯데백화점의 다섯 번째 해외 점포이며, 한국 백화점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것이다. LOVE는 인도네시아에 쇼핑몰의 뉴 패러다임을 선보인 다목적 Life style 복합 쇼핑몰로서 쇼핑, 외식은 물론 교육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새로운 컨셉의 쇼핑몰이다. LOVE는 3만3천평 규모로 자카르타에서 가장 큰 쇼핑몰 중의 하나이며 입점 브랜드 수도 약 500개, 매장 입점 율이 6월말 기준 93%에 이른다.

[롯데애비뉴의 매장 컨셉]

LOVE를 방문하면 우선 시원한 개방감과 쇼핑하기 편리한 고객 동선이 눈에 들어온다. 인니 시장에 적합한 최상의 Life Style센터로서 손색이 없는 매장 구성에 고객의 쇼핑 편리함 까지 더해진 쇼핑몰이다. 특히 고객의 쇼핑이 더욱 편리하도록 상품군별 Zone을 만들어 브랜드간에 상품과 디자인을 비교하기 편리 하도록 매장을 배치 하였다. 특히 오픈된 공간에 배치된 상품들은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꼭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부담 없이 만져보고 비교도 해보고 착장 해 보는 등 편안한 쇼핑을 할 수 있어 좋다.

식당가는 인도네시아 특성상 매우 중요한 쇼핑몰 구성요소인데 롯데애비뉴는 기본 설계 단계부터 최고의 식당가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국가별 음식 종류와 메뉴 구성 그리고 고객층별 선호식당 조사를 실시해서 각 층별 레스토랑을 차별화 해서 유치 전략을 수립 했다. 그 후 최고의 식당가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니, 싱가폴, 홍콩 태국,두바이 및 한국 등을 방문해서 시장 조사결과를 통해 입점 브랜드를 선정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롯데애비뉴에 입점한 모든 식당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키는 레스토랑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매장 요소 요소에 배치된 2천석 규모의 고객 휴게공간, VVIP 고객을 위한 MVG 라운지, VIP 주차장, 가족 화장실 등 여러 고객 시설에서 롯데의 세심한 고객배려 정신이 느껴진다. 다른 쇼핑몰 같으면 고객을 위한 공간배려 보다는 한 평이라도 더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올리려고 했을 것이다.

[롯데애비뉴의 차별화 된 매장 운영 및 고객시설]

롯데애비뉴의 운영 방침은 고객서비스에서 뿐만 아니라 “Wonder Free” 마케팅 전략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다. 롯데는 고객의 편리한 쇼핑을 위해서 외국어 쇼핑도우미 서비스, 품절 상품 주문 서비스, 유모차 대여 서비스, 무거운 짐 운반 도우미 서비스 등 인니 시장에 처음 선보이는 고객서비스를 시행 하고 있다. 이런 고객서비스 정신은 품절 상품 주문 서비스에서 엿볼 수 있다.

The Ice Palace

The Ice Palace Hall

Art & Culture Edutainment Centre

Avenue of Style

Magic Bubble Show

Art Kid Class

MVG Lounge

Dompet Dhuafa

즉,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재고가 없어 주문고객이 매장을 다시 방문할 경우에는 고객께 상품권을 드리고 있다. 이는 롯데가 상품 재고가 없어 고객이 다시 방문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상품권을 드리는 것으로 롯데의 고객서비스 정신을 담은 방침이기도 하다.

Wonder Free 는 "고객은 쇼핑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 주차, 엔터테인먼트(영화), 외식은 롯데에서 책임진다" 는 컨셉의 마케팅 전략으로 주중 무료주차, 영화 관람권 제공, F&B 쿠폰 제공 등의 프로모션 행사를 매일 진행하고 있다.

[롯데애비뉴에만 특별한 고객혜택]

고객중심의 New Shopping Paradigm을 만들어 가고 있는 LOVE는 구매 고객에 대한 혜택과 방문고객에게 즐거운 경험과 체험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Wonder Free 혜택 외에도 구매 고객에게 드리는 10-17% Everyday Cashback 프로모션은 다른 쇼핑몰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혜택이다. 또한 화장품 고객만을 위한 LOVE Beauty Club은 화장품을 구매하는 여성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롯데애비뉴 만의 고객혜택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VVIP를 위한 MVG 제도, 롯데 멤버스제도 등은 한국에서의 유통 경험과 고객관리 노우하우가 집약된 전략으로 앞으로 기존 쇼핑몰과 더 큰 경쟁력을 갖게 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애비뉴의 CSR활동

롯데애비뉴 CSR은 진정성과 지속성을 기본 정신으로 오픈 전부터 2년여 넘게 시행하고 있다. 불우한 이웃의 자녀교육 지원과 그 아이들이 만든 생일 카드를 구매해서 롯데애비뉴 직원의 생일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의료봉사, 거리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지원, 태양광 전등 지원 등 직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Dompet Dhuafa와 협력해서 "Safe for Hope" 테마로 잔돈 기부 상자를 비치해서 LOVE의 고객과 함께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2014년 6월 10일부터 1 년 동안 진행 중이다. 또 최고의 매트리스 회사와 연계하여 고객은 새 매트리스를 구입하면서 옛 매트리스 기부를 통해 자선을 할 수 있는 "Buying Yourself a New Matrress Will Help" 테마로 CSR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라마단 기간에는 방문고객의 F&B 영수증의 1%를 롯데애비뉴가 기부하는 CSR 행사도 시행 할 예정이다.

롯데애비뉴 오픈 1년, 기존 쇼핑몰과 차별화된 매장 구성과 운영 전략이 도입 단계이나 머지 않아 인니 시장에 쇼핑의 뉴 패러다임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계속해서 오픈 될 2호점 3호점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Employee CSR visit Sekolah Kami

한인회 무료 법률 상담 안내

1. 상담자 :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 파산관리사
HP : 0816 1911 245
Tel : (021) 5296 0643
E-Mail : yisngmin@centrin.net.id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리아센터 202호
KOREA CENTER BUILDING LT.2
Jl. Jend.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2. 상담자 : 이 소 왕 변호사
HP : 0816 846 631
Tel : (021) 520 7153
E-Mail : doowang@cbn.net.id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장소 :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1701호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3. 상담자 : 김 민 수 변호사
HP : 0816 794 257
Tel : (021) 797 6254
E-Mail : ms@paklawfirm.com

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린도 사무실 5층
WISMA KORINDO LT. 5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상담 에티켓>
상담업무의 효율 증진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변호사에게 사전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속의 심리학]

미루기의 심리학

비합리적 지연의 과정

우선 스틸(Steel)이라는 학자가 만든 다음 질문에 '늘 그렇다' 는 5점, '전혀 아니다' 는 1점으로 독자들도 점수를 매겨 보길 바란다.

1. 나는 너무 늦은 지경까지 결정을 지연한다.

2. 결정을 한 후에도 실제 실행을 지연한다.

3. 나는 최종 결정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사소한 것들에 시간을 허비한다.

4. 마감에 맞추는 준비를 하면서도, 나는 종종 다른 것들을 하는데 시간을 쓴다.

5. 나는 단순히 앉아 하면 되는 일조차도 며칠이 걸려도 완수하지 못하곤 한다.

6. 나는 종종 며칠 전에 하려고 했던 과제를 지금에야 한다.

8. 나는 해야 할 일의 시작을 보통 미룬다.

9. 나는 시간이 늘 부족하다.

10. 나는 시간에 맞춰 일을 하지 못한다.

11. 나는 모임의 마감 시한을 잘 지키지 못한다.

12. 예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미뤘다가 손해 본적이 있다.

몇 점의 점수가 나왔는지 합산해 보기 바란다. 물론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일을 미루는 행동을 한다. 하지만 모두가 상습적인 혹은 만성적인 미루

기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라리라는 심리학자의 추측에 의하면 거의 20% 정도의 사람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한다. 위 질문에 총점이 36점 이상이라면 그렇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배경도 필자가 원고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고 부리나케 쓰면서 "나는 왜 그럴까?" "미루기의 심리적 기제가 무엇일까?" 등이 궁금해서였다. 필자도 사실 상습적으로 미루는 습관을 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된 생각과 연구 결과를 이야기 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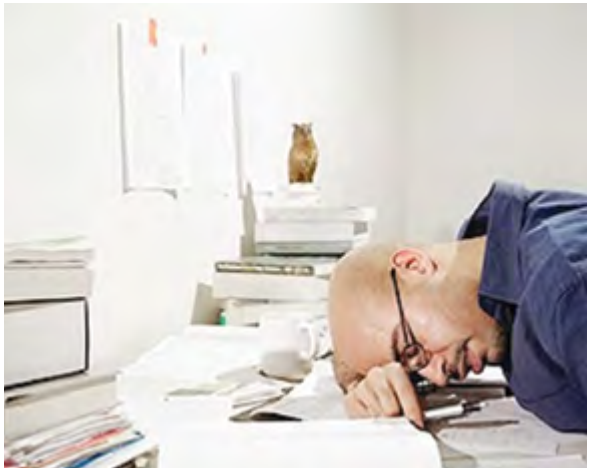
미루기는 나쁜 행동일까?

지연이나 미루는 습관의 결과는 경우에 따라서 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첫째로, 미루기가 나쁜 행동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말하자면 뭐라고 해도 미루기가 아주 나쁜 습관은 아니고 더구나 도움이 될 수도 있는 행동이라고 둘러댈 수도 있다. 일을 언제 완료하는가 보다는 잘하는 게 중요하고, 결국 늦게라도 하기는 했으니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적인 압박이 있을 때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도 한다. 필자도 글을 쓸 때 미리미리 계획에 맞춰 준비하며 집필 작업에 착수 하지 않는다. 우선 주제를 생각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풀어 갈지를 머릿속에서 만들다 지우기를 반복하고 다시 구성하기도 한다. 그러다 결국 마감일까지 미루거나 넘기고 급하게 마무리를 지은 후 '휴' 하고 한숨을 쉬는 게 보통이다. 그래도 마무리는 했다는 만족감과 함께.
하지만 이런 주장은 교묘하게 장점만 부각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지연이나 미루는 습관의 결과가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에게 자기 기만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 제출이 늦어 감점을 받는 학생이나 나쁜 업무 고과를 받게 되는 직장인을 보면 명확해 진다. 솔직히 고백하면, 필자도 이 네이버캐스트에 미루다 급하게 쓴 글을 다시 읽으며 자괴감에 빠진 적인 한두 번이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글을 썼을까, 문법도 맞지 않고 내용도 횡설수설하고 등등" 전문적인 작가가 아닌 필자로서는 글을 쓰고 다시 읽고 고치고 하며 완성도 높은 글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며 초고, 재고, 삼고를 거쳐야 하는데 말이다. 필자도 지연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미루기는 시간 관리의 실패?

미루기 행동을 단순히 시간 관리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활동에는 효용성이 있으며,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은 더 하기 쉽거나 즐겁기에 먼저 하고, 마감일이 돼서야 하기 힘든 과제가 중요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우선하다 보니 늦어지고 지연된 것이라고, 말하자면 시간 관리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루기는 잘못된 시간 관리의 문제이기에 그리 심각하게 여기 필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미루기가 단순히 시간 관리의 실패일까?

바움마이스터라는 심리학자는 한 학기 동안 대학생들의 미루기 행동, 학업 수행, 스트레스, 전반적인 건강상태 등을 추적하여 측정하였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초기에는 미루기 정도가 높은 학생들에게서 스트레스가 낮았다고 한다. 아마도 일을 미루고 여러 즐거운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말에는 미루기의 대가가 일시적인 이득을 능가했다고 한다. 미루기꾼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낮은 평점을 받았고



높은 스트레스와 나쁜 건강 상태를 보고했다고 한다. 일도 마무리 못하고 심리적, 신체적 안녕감에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핸드폰과 같은 장치를 통해 대학생들의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의 미루기 행동과 정서 상태를 온라인으로 추적한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준비해야 할 과제가 힘들어 질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그러면서도 일하기는 미루고 다른 재미나는 행동에 빠졌다고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들은 높은 수준의 죄책감도 느꼈다고 한다. 말하자면 이들도 현재하는 재미나는 일이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한 때 농담 삼아 잘 알려진 격언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로 바꿔 쓴 적이 있다. 당장의 힘든 과정을 회피한 것이다.

연구 결과들은 미루기가 단순히 시간 관리의 실패는 아니며, 정서 과정, 자기-통제, 충동성과 같은 성격 특성 등과 함께 작용하는 복잡한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미루기가 단순히 시간 관리의 실패는 아니며, 정서 과정, 자기-통제, 충동성과 같은 성격 특성 등과 함께 작용하는 복잡한 과정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미루기가 자기 기

만적이며, 최선을 다하는 행동을 약화시키는 부적응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준다. 신경심리학적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대뇌에 전전두엽은, 일을 계획하고 잘 되는지 확인하면 완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보통 심리학자들은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ing)이라고 부른다. 라빈과 동료들은 21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과 관련된 미루기와 충동성, 자기 점검, 계획 세우기, 활동 전환, 과업 시작과 점검, 정서 통제, 작업 기억, 질서 정연함과 같은 아홉 가지 집행기능을 함께 측정하고 관련성을 살펴보았다고 한다. 놀랍게도 미루기는 이 아홉 가지와 모두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였다고 한다. 물론 이들 관계가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이지만 미루기가 "아주 미묘한 집행기능 장애" 의 표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루기의 굴레를 벗어나는 법

그러면 어떻게 미루기의 굴레를 벗어나야 할까? 해야 할 일 전체를 다루기 쉽도록 작게 나누어 미루지 말고 즉각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장의 만족을 장기적인 목표와 타협하는 인식도 중요할 것이다. 외부에서 주어진 마감을 스스로 관여하는 자신만의 마감일로 바꾸는 작업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즉각적인 만족이나 감정의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이 갖는 긍정적이며,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도 있으며, 특히 일이나 과제가 갖는 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Rabin, L. A. Nutter-Upham, K. E. (2011). Academic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self-reported executive function.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Neuropsychology, 33, 344-357.

글
김영진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풍경

시 : 이 율 리 / 그림 : 이 태 복

갓난아이
두 팔 벌리고
나비잠 자고

창밖 밖
뜨락엔
햇살 가득하다

이 율 리
2007. 동남아신문 싱가포르한나프레스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
2009. 월간 문예사조 수필부문 신인작품상 당선
공저> 서정의 뜰 2, 한국대표서정시선 3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 재인니한인문인협회 회원

촛불 같은 사람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지난해 연말, 내가 활동하는 문학단체를 통해 전국초등학교 우수일기대회 심사위원으로 참가했을 때의 일이다. G초등학교 4학년 영훈이라는 아이가 쓴 일기를 읽게 되었다. 영훈이네 가족은 아빠, 엄마, 누나, 영훈이 이렇게 네 식구인데 아빠는 직장으로 인해 지방에 내려가 일을 하시고 엄마도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슈퍼마켓에서 판매원으로 일을 하신다. 그렇기에 중학생인 누나가 집안일도 거들며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영훈이의 학습과제물도 챙겨주고 함께 공부도 도와준다.

그다지 넉넉하지는 않아도 영훈이의 일기를 통해 가족모두 성실하고 화목한 가정임을 느낄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일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기는 주3회 쓰면서 주제를 정한 다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쓰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영훈이의 일기를 살펴보던 중 '촛불회의'라는 주제가 눈에 띄었다.

영훈이의 아빠가 한 달에 한번 주말을 맞아 지방에서 집으로 돌아오시는 날이다.

저녁식사를 마친 후 집안에 있는 밝은 전등불을 모두 꺼놓은 상태에서 마루에 있는 큰 탁자위에 예쁜 색의 촛불 하나를 켜두고 온 식구가 둘러앉아 촛불회의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촛불회의 시간에 영훈이가 사회자로 진행하면서 식구들의 순서를 정해 아빠, 엄마, 누나 순서로 그동안 가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자신의 잘못이나 반성할 점, 그리고 가족들에게 건의하고 싶은 사항 등을 주로 이야기 한다고 했다.

참 귀하고 특별한 가족회의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서 영훈이의 일기내용에 감동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모두가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되어가는 지금의 시대에 영훈이네 가족의 ‘촛불회의’는 참 위대하고 좋은 발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가족과 돈독한 사랑으로 소통하며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 영훈이네 가족을 상상해보며 그런 이유에서 나는 영훈이의 일기에 높은 점수를 주었던 기억이 난다. 영훈이네 가족은 촛불회의가 끝날 무렵 마무리는 아빠와 엄마가 늘 영훈이와 누나를 꼬옥 안아주고 등을 토닥거려 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영훈이의 귀에 속삭이듯이 말씀하셨다던 “영훈아!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촛불과 같은 사람이 되렴” 영훈이는 그 느낌이 너무 행복하다고 적었다.
지금도 영훈이 아빠가 영훈이에게 들려주었다던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따뜻하고 훈훈한 느낌으로 남아있다. 아마도 자신을 태움으로써 주위를 환하게 밝혀주는 희생정신을 지닌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되니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난다.
그만큼 ‘촛불’이라는 의미는 신성함과 엄숙함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은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모든 종교의식과 더불어 우리의 생활문화에 희생과 사랑이라는 고귀한 정신으로 비유되기 때문이다. 촛불은 또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인간의 신체에 곧잘 적용된다. 불가(佛家)에서는 초의 심지는 마음, 초의 몸통은 육체를 상징한다고 했다. 초에 불을 붙이는 것은 마음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또 교회에서는 초의 심지를 그리스도의 영혼, 초의 몸을 그리스도의 육신, 그리고 불꽃은 그리스도의 신성이라 하여 촛불을 삼위일체에 비유하고 있기도 하다. 촛불은 그렇게 성스럽고 고귀한 상징으로 의미된다.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바슐라르의 책 ‘촛불의 미학’에서는 촛불이 잘 타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커다란 시간,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가! 길게 뻗치고 끝이 뾰족해진 불꽃 속의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생명의 미묘함! 삶과 사랑과 꿈의 가치가 그때 결합되고 있는 것이다”라며 촛불의 미학(美學)을 아름다운 글로 그려내듯이 표현했다. 바슐라르의 책을 읽으면서 촛불의 의미는 희생이기도 하지만 또한 서서히 타들어가는 인내심을 발현하는 사랑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만 같았다.
촛불은 우리 마음속에 좋은 스승이기도 하다. 촛불은 아주 서서히 타들어 간다.
촛농이 녹아서 타들어 가는 것을 오랫동안 바라본 적이 있다.
촛불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깊은 의미는 아주 천천히... 그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아주 천천히 가슴아파하고 아주 천천히 누군가의 빛이 되어주는 것이다. 아주 천천히 모든 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마침내 주위의 모든 것들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두려움 없이 던지는 것이다.
과연 촛불 같은 사람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우리의 삶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명의 촛불처럼 사랑의 원천으로 남아 끝없는 창조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눈앞에 닥친 현실의 삶에 골몰하느라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진정으로 따뜻한 사랑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또는 가족만의 의미 있는 행사 등에 아늑하고 따스한 분위기를 위해 예쁜 색 양초를 잠시 동안 켜두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자.
서로의 마음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새겨들며 촛불의 신성함과 어울려 한층 더 축복이 내려질 것만 같다. 소멸함으로써 더욱 빛나는 사랑, 촛불의 순수함을 부디 잊지 말았으면 한다. 문득 생각해본다. 영훈이네집 촛불회의는 요즘도 계속되고 있을까? 일기를 통해 만났지만 한 번도 만나본적 없는 영훈이라는 아이의 밝은 표정을 떠올려보면 마음이 흐뭇해진다. 그리고 영훈이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내게 말하고 있는 것만 같다. 선생님! 우리 모두의 맘속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촛불을 켜놓고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요. 라고.....

자무(Jamu), 인도네시아의 전통의약 (2)

백 진 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니생물소재연구센터장)

지난 호에 이어

자무의 원료의 다양성

자무의 원료는 대부분 인도네시아에 자생하는 식물이지만 워낙 숫자가 많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퍼져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로 자바 섬에만 약 4,500여 종의 현화식물(꽃피는 식물)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군도 전체(25,000~30,000 종) 현화식물의 약 14~16%를 차지합니다. 오래전 Heyne(1927) 이라는 학자에 의해 조사된 보고로는 조류(algae), 버섯, 고사리류, 그리고 겉씨식물(소나무류)을 포함하여 1,040종류가 전통의약으로 사용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그중에 약용식물은 996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제약회사인 P.T. EISAI Indonesia에 의해 발간된 'Index of Medicinal plants in Indonesia' (Kazahara, 1986, 1995)에서는 인도네시아 전역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7,500여종의 유용식물과 3,689종의 약용식물(모든 부위 포함)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Zuhud (1994) 라는 학자는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약용식물로 사용되는 1,260종의 열대 수목(tree)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Sangat-Roemantyo 와 Riswan (1990)은 자바 섬의 중부, 서부, 동부 등 여러 전통 마을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에 의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151종의 약용식물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생강과 국화과 콩과 대극과 그리고 꿀풀과에 속하는 식물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생강과(Zingiberaceae)에 속하는 식물들이 전통 자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식물들이었습니다.

부위별 사용례

수백 가지의 자무 처방이 있지만, 대표적인 처방의 부위별 명칭은 아래와 같습니다.

뿌리 (근경, Rhizomes):

Bengle (븡글, Zingiber brevifolium)
Jahe (자헤, Zingiber officinale)
Kencur (끈쭈르, Kaempferia galangal)
Kunyit (꾸닛, Curcuma domestica)
Lempuyang (룸뿌양, Zingiber zerumbet or Zingiber aromaticum)
Lengkuas (룽꾸와스, Alpinia galangal)
Temulawak (뚜물라왁, Curcuma xanthorrhiza)

잎(Leaves):

Brotowali or Bratawali (보토왈리, Tinospora crispa or T. tuberculata)
Sambang Darah (쌈방 다라, Excoecaria cochinchinensis)
Secang (스짱, Caesalpinia sappan)

종자(Seeds):

Adas (아다스, Foeniculum vulgare)

열매(Fruits):

Ceplukan (쯔뿔칸, Physalis angulata)
Jeruk nipis (즈륵 니삐스, Citrus aurantifolia)
Nyamplung or kosambi (냠플룽, Calophyllum inophyllum)

나무껍질(Barks):

Kayu manis (까유 마니스, Cinnamomum burmannii)

꽃(Flowers):

Ilang-Ilang (일랑일랑, Cananga odorata)
Melati (멜라띠, Jasmin sambac)
Rumput (알랑알랑, Gramineae)

자무에 대한 문화와 철학

문화적으로 자바인들은 모든 질병은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낮과 밤, 일출과 일몰, 오늘과 내일과 같이 일종의 음양이론과 같은 자연현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바인들은 신은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약을 이미 자연 속에 준비해 놓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바인들은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약을 항상 자연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바인들은 인간의 삶은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출생 (birth)
2) 생후 7개월 (7 month old)
3) 생후 5-6 살(여자아이), 9-12살 (남자아이)
4) 성인기 (adult age)
5) 결혼기 (Married)
6) 죽음 (Death)

자바인들은 인생의 각 단계에 들어설 때마다 많은 종류의 위험과 불운에 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위험과 불운에 대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인생의 단계에 접어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전통적인 의식과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출생의 단계에서, 심지어는 자궁에 있을 때부터(임신 7개월 후) 죽을 때까지 행해집니다. 오늘날에도 먼 시골이나 오지에서 이러한 의식들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에서 많은 종류의 자무와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식물의 부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생의 단계마다 섭취해야 하는 자무의 종류도 다르다고 합니다.
다른 전통부족들처럼 자바인들의 전통의약 또한 주로 구전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식물 일부나 전체 혹은 단일 종 혹은 여러 혼합된 식물을 건강유지와 면역증강, 질병 치료와 다른 목적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바인들은 전통 자무와 관련된 또 다른 용어로 '음뽄음뽄 (empon-empon)', '보태칸 (botekan)' 그리고 '자무갠동 (Jamu gendong)'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자바의 도시들뿐만 아니라 오지 시골지역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음뽄음뽄

음뽄음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1. 약용식물 가내 정원(home garden) 혹은 'pekarangan' 이라고 합니다. 자바인들은 약용식물의 재배를 위해 각자 그들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쉽게 약용식물을 확보하여 건강유지나 질병 치료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홈가든은 주로 집 주변에 위치합니다.
2. 음뽄음뽄은 또한 생강과 식물에 속하는 한 무리의 약용식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Kunir (Curcuma longa L.)', 'Kencur (Kaempferia galangal L.)', 'Jahe (Zingiber officinale Roscoe)' 그리고 'Laos (Alpinia galangal (L.) Wild.)가 있습니다. 음뽄음뽄은 시골마을에서 환자 발생 시 공공의료센터나 의사에게 가기 전 응급처치용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일부 음뽄음뽄은 향료나 염료 장식용 식물로도 이용됩니다.

홈가든

보테칸

자무 째꼭(Jamu cekok)

시골 마을에서 아직도 볼 수 있는 전통자무 종류의 하나로 'Jamu cekok' 이라고 하며 5세 이하 영아와 어린이들의 식욕을 증진하기 위한 특별한 자무입니다. 'Cekok' 의 의미는 강제로 입안에 음식을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자무의 맛이 매우 쓰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회피하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자무이며 건강하지 않거나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 가정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보테칸(botekan)

보테칸은 나무로 만들어진 용기나 상자로 자바인들이 전통적으로 부엌에 놓고 사용합니다. 건조된 약용식물이나 향료 자무를 보관하는 상자입니다. 크기는 40x20x30cm이고 4~5개의 서랍이 안쪽에 있습니다. 보테칸에 주로 보관하고 있는 약용식물은 bawang merah, bawang putih, tumba, pala, cengkeh, sereh, temu kunci, kunir, kencur, lengkuas, jahe 등이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연재

이슬람의 5대 의무 (5 Pilar-pilar Islam)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1. 신앙고백(Shahadat)

"알라이 외의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가 선지자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아랍어로 "앗쉬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Asyhadu Allah Ilaha Illallah), 앗쉬하두 안나 무함마다르 라쑤롤라(Wa Asyhadu An-na Muhammadar-rasulullah)." 라고 말한다. 이것은 알라의 유일성과 이슬람이 알라의 최후 종교임을 확신하고 무하마드가 최후의 사도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처음 무슬림이 될 때에 반드시 선언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다. 이슬람의 입교 의식 절차는 간소하고 쉬운 것이 특색이다. 신앙고백을 살펴보면 크리스트교의 삼위일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교리임을 알 수 있다.

2. 기도(Sholat)

하루 다섯 차례의 기도는 인간 세계와 알라를 연결 시켜주는 신앙심의 표시이며 늘 반성하라는 의미가 있다. 성지 메카를 향해 기도하며 암송하는 코란 구절은 아랍어로 통일 되어 있으므로 국적이 다른 무슬림도 서로 형제애를 느낄 수 있다. 그 차례는 새벽 4시 30분에 드리는 솔랏 수부(Sholat Subuh), 한낮 12시 30분에 드리는 솔랏 주후르(Sholat Dzuhur), 오후 3시 30분에 드리는 솔랏 아사르(Sholat Asar), 해질 녘 저녁 6시에 드리는 솔랏 마그립(Sholat Magrib), 밤 7시에 드리는 기도 솔랏 이사(Sholat Isa)이다. 무슬림들은 여행을 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를 드린다. 성인이 되지 않는 사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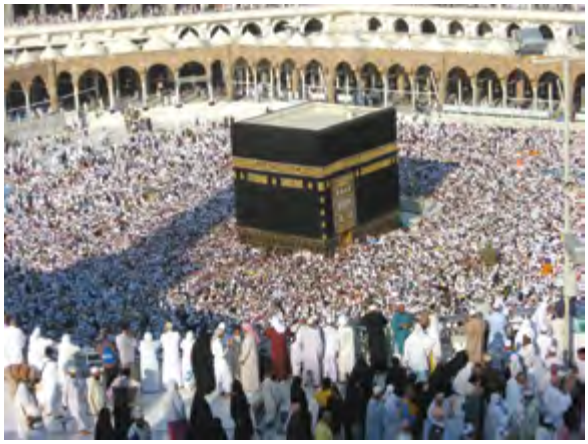
게는 기도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인도네시아 인들은 조혼의 풍습이 강하다. 대체로 평소에는 12살 이하의 남자나 여자는 집에서 기도를 드린다.

3 라마단(Ramadhan) 달에 행하는 금식(Puasa)

성월인 라마단(Ramadhan) 기간은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이며 금식을 하는 기간이다. '뿌아사(puasa)' 는 금식을 뜻하는 말로 무슬림에게 부과된 5대 의무 중 세 번째다. 또 라마단은 무함마드가 신께 계시를 받은 달이기도 하다. 라마단이란 말은 아랍어 '타는 듯한 더위와 건조함' 을 뜻하는 아랍어 '라미다' 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라마단 달은 밤보다 낮이 더 길어 햇빛이 쨍쨍한 달이다. 라마단은 '마른 목과 죄를 불태운다.' 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폭력, 화, 시기, 탐욕, 중상 등을 삼감으로써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서로 잘 지내고자 한다. 라마단 기간에는 음식, 흡연, 성행위 등, 음탕하고 반종교적인 행위 역시 금지된다. 금식은 전통적으로 동틀 녘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지켜진다. 특히 금식 기간 중에는 이들에게 종교 모독 행위, 취식, 흡연 등 자극적인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루 중 금식 시작하는 것이 '사후르 (sahur)' , 금식을 해제하는 것은 '부까 뿌아사 (buka puasa)라고 한다. 오후 6시경 마그립(Maghrib) 기도 전에 물을 마시는데 이를 Buka Puasa라고 한다. 라마단은 업무 시간은 줄지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새벽기도 전 식사와 다섯 차례의 기도, 이어지는 엄격한 금식과 금욕을 하며 낮에는 신의 위대함을 칭송하고 저녁 시간에는 코란을 평소보다 많이 암송하며 저녁 6시 마그립 (Maghrib) 기도를 한 다음에 단체로 사원에서 살랏 따라위 (Salat Tarawih)로 불리는 특별 기도를 드린다. 따라위 기도는 아랍어로 '잠깐 쉬는 시간' 을 뜻한다. 풍성한 저녁과 사람들과 함께 하는 밤 2시까지 이어지는 향연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배려한다. 밤마다 친척과 친구들을 방문하고 음식을 나누며 선물을 주고받는다. 이 기간은 이슬람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라마단 특수' 현상이 나타난다. 또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 주고 나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경건한 기간이다. 전쟁 중인 군인, 장거리 여행객, 어린이, 노약자나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금식의 의무가 완화되지만, 라마단이 끝난 후에 금식을 하지 못한 일수를 반드시 채워야 한다. 금식은 신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행위로, 금식의 계율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신앙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무슬림들은 낮 시간의 절제와 기도를 통해 신에게 더 가까이 가고, 개인적인 과실과 악행을 속죄하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가난한 이웃의 고통과 굶주림을 이해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길러 준다. 공복 상황은 자제력을 가르치고 인내심을 키워주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질과 심성도 길러주지만, 자신의 몸 상태를 정밀히 진단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건강학적인 측면도 있다. 무슬림들은 라마단을 고행이 아니라 축제의 시기로 여긴다. 거리나 골목에 내걸린 색깔 종이나 깃발 혹은 사원 모양의 조형을 보면 알 수 있다.

4 희사(Zakat)

라마단 단식 기간이 끝난 후 희사 행위를 의무적으로 한다. 지난 1년 수입의 2.5%, 교역품의 2.5%, 농업 생산의 5-10%정도를 희사하여야 한다. 국가 재정의 기본이 되며 선교 기반을 이루기도 한다. 재산은 알라가 원하는 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데 사용해야하며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자선을 베풀어 달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친다.



5. 성지 순례(Haji)

Haji란 성지 순례라는 의미이며 이슬람력으로 마지막 달인 12월(Haji)은 성지순례 기간이기 때문에 무슬림에게는 매우 신성한 달로 여겨진다. 일생 동안 한 번 이슬람의 3대 성지인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중 제1성지인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을 방문하는 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곳 성전의 중심부에는 검은 휘장으로 둘러싸인 검은 돌이 있는데, 이는 지구상에 알라를 숭배하기 위한 단 하나 밖에 없는 상징물이다. 카바는 흑석을 의미하는 말이며 아브라함이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돌이다. 검은 돌 주변에 흐르는 성수를 기념으로 가져오기도 하며 순례자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곱 바퀴를 돌며 기도를 드린다. 이처럼 카바 신전이야말로 이슬람교도들의 정신적 구심점이다. 또한 마파와 마루아라는 두 동산을 7회 왕복한 후 아라파트 동산에 가서 악마를 상징하는 돌기둥에 돌을 던진다. 순례 의식의 고행을 통해 예언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유일신에 대한 투철한 믿음을 답습함으로써 신앙적 깨달음을 얻는다. 특히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순례여행은 Haji월의 Idul Adha(양 잡는 날) 축일에 떠나는 것이 으뜸이라 한다. 순례 기간이 아닐 때 행하는 순례는 '우무라' (작은 순례)라고 하여 하지와는 구별한다. 성지 순례 때의 복장은 흰옷이거나 재단하지 않은 흰 천을 여민 '이흐롬' 이라는 복식을 착용한다. 이는 알라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별로 순례 인원을 할당해 주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211,000명이다. 400만 정도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교 행사이다. 자카르타에서는 할림(Halim) 비행장에서 성지순례를 떠난다. 순례 비용은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800만 원 정도)하나, 알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비용만 융통이 되면 만사를 제치고 메카로 하지를 떠난다. 단기간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메카가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족한 시설과 무리

한 일정으로 사망하는 무슬림이 속출하나 이러한 죽음은 오히려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순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세계 이슬람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성지를 돌아봄으로써 신앙심을 굳히고 영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이며 먼 여정을 통해 인내와 헌신을 배우게 하는 실천 의무이다.

대명절 르바란(Lebaran) 혹은 이둘 피뜨리(Idul Fitri)

라마단이 끝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깟 피뜨라(zakat fitrah)로 불리는 자선도 하고 르바란(Lebaran) 혹은 이둘 피뜨리 (Idul Fitri) 명절도 지낸다. 이둘 피뜨리는 아랍어에서 유래되었고 '명절' 을 뜻하는 '잇 (Ied)' 과 '끝내다, 종료하다' 를 뜻하는 '피뜨리 (Fitri)' 가 합쳐진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둘 피뜨리는 라마단 기간이 끝났음 알리는 이슬람의 명절이다. 인도네시아어로는 르바란 (Lebaran)이라고도 한다. 이 명절은 이슬람력이기 때문에 매년 약 11일씩 빨라진다. 라마단의 절정은 라마단이 끝나는 샤왈(Syawal, 이슬람력 10월) 첫째 날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주고받으며 새벽에 드리는 감사 예배

다. 르바란 전날 밤에 금식 종료를 축하하며 손을 부여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라마단의 성료(盛了)를 축하합시다. 승리한 밤입니다." 라고 말하며 북을 치고 찬양을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닌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불꽃을 올리면서 밤을 즐겁게 보낸다. 르바란 아침에 남녀노소 들이 큰 마당에 모여서 집단으로 잇 (Ied)이란 기도를 하고 이둘 피뜨리에 관한 설교를 듣는다. 가족친지들은 전통복장을 차려입고 특별한 인사말을 하는데, "이둘 피뜨리를 축하드리며 모든 잘못을 용서해주시기 바란다." 라는 뜻으로 "Selamat hari raya Idul Fitri, Mohon maaf lahir dan batin" 이라고 말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 이로써 이틀간의 우리나라의 설 추석과 같은 최대의 명절인 르바란 즉 Idul Fitri를 즐기며, 성묘를 하고 어른들께 인사를 다니기도 한다.

이 기간 중에는 알라를 찬양하는 예배 소리가 요란하다. 알라의 가르침과 의무 지시 사항인 한 달간의 금식을 수행했다는 종교적 믿음에 대한 확신과 금식의 고통과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성취감을 만끽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둘 피뜨리를 가족친지와 함께 즐기면서 꼭 준비하고 먹는 음식이 특식인 바나나 잎사귀로 싼 사각형 모양의 주먹밥인 끄뚜빳(ketupat)이 인기를 끈다.

끄뚜빳은 야자나무로 싼 마름모 모양의 밥이며 보통 닭탕과 비슷한 야자유 국물에 넣은 오뽀르 아얌 (opor ayam)과 먹는다. 이둘 피뜨리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공휴일로 여겨져 있어서 일주일간 휴무가 시작되고 상여금이 주어진다. 그래서 일하거나 공부하러 자카르타로 온 사람들이 이둘 피뜨리 며칠 전에 '무딕 (mudik)' 으로 불리는 귀향을 하며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다. 귀향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카르타가 조용한 반면에 지방은 평소에 비해 길이 막히고 더 복잡하다. 인도네시아에는 이슬람 축일 외에도 종교 관련 축일이 총 9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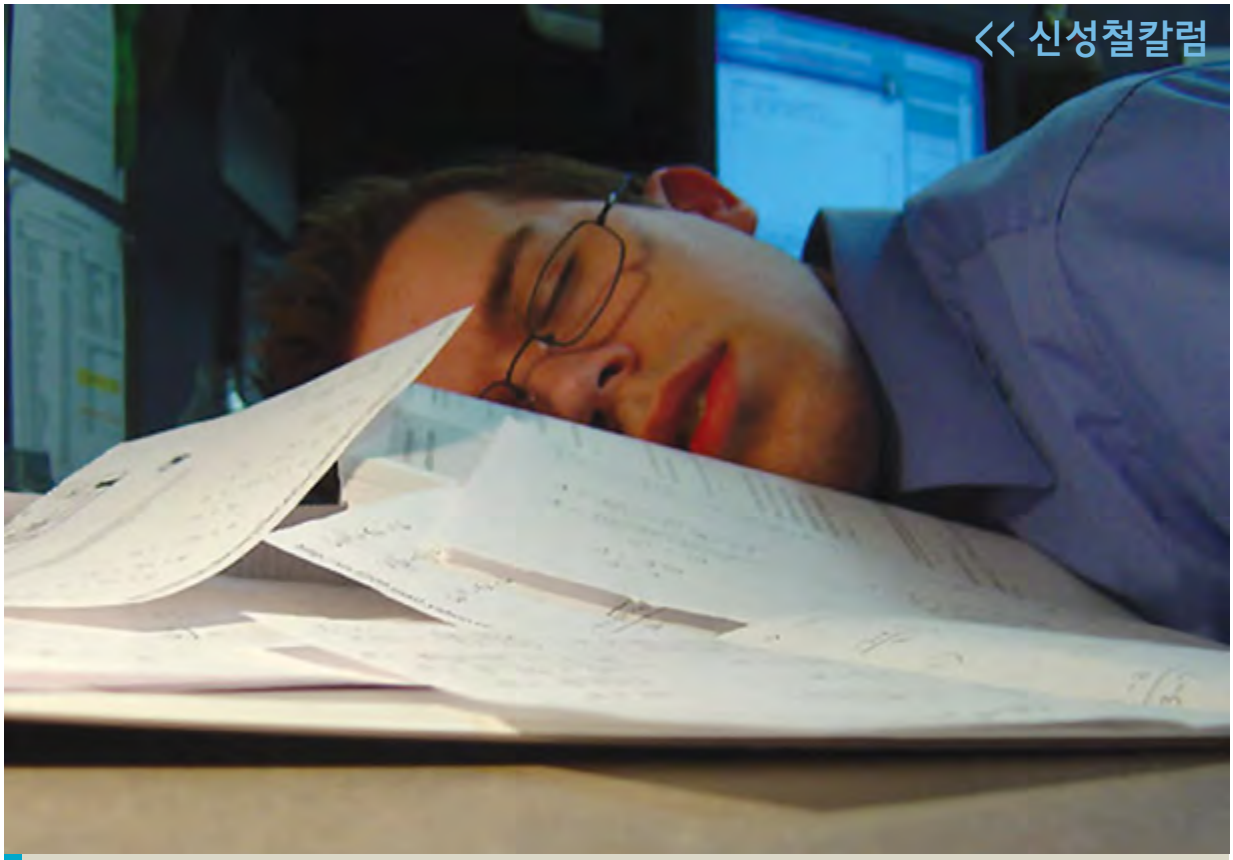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253회 문화탐방

<문명-야만>이라는 이분법식 도식의 오만을 깨는 야성과 전율의 일탈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 2012년 6월 21일(토) 9:30~12:00
(탐방지에서 모임)
탐방지 : ROEMAH DJAWA
(021) 7591-3558
Jl. Lebak Bulus III No. 85-Z
Lebak Bulus, Cilandak, Jak. Sel.
회 비 : 25만루피아
연락처 : 0817-708-253, 0816-190-9976,
(021) 527-3630
ballonjoa@hanmail.net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서 수집한 예술품의 전시장인 루마자와에는 잊혀지고 사라져 가고 있는 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바원인이 발견된 솔로강가의 구석기 시대 유물과 영혼과 육신의 일체화를 통해 삶을 가로지르는 영겁의 시간이 있는 아스맛 유물을 만나보세요.
-문명에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를 뿐이다-(레비스트로스)



라마단 기간 부디 씨의 하루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자바 출신이며 이슬람 신도인 '부디' 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자카르타에서 무역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40대 직장인 부디를 통해 신성한 달인 라마단 기간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상~ 기상~ 기상~ 기상~ 기상~ 3시가 됐습니다 (Bangun~ bangun~ Bangun~ bangun~ Bangun~ pukul tiga)" 지난 7월 2일 이른 새벽 어둠을 가르는 이슬람사원의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적막을 깼다.

전날 저녁, "오늘 부까 버르사마는 한식당에서 하자구." 한국인 회사와 거래해 한국 음식을 즐겨먹는 밤방 팀장이 하루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을 재촉했다. 부까 버르사마(Buka bersama)는 라마단 기간에 한나절 금식한 후 가족이나 직장동료들과 함께하는 만찬이다. 줄여서 북버르(bukber)라고도 한다. 부디는 라마단이면 밤방 팀장이 연례행사처럼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했다. 부디는 오랜만에 시내 한식당에서 갈비찜과 잡채, 냉면을 배불리 먹었다. 이어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열기를 더해가는 월드컵에 대해 밤 10시까지 갑논을박을 벌였다.

인근 사원의 낡은 스피커에서 터져나오는 째지는 듯한 기상 외침에 부디는 더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었지만 눈이 떠지질 않았다. “여보, 일어나서 사후르 드시고 새벽기도 하셔야죠” 아내 디안이 채근했다. 부디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사후르(Sahur)는 라마단에 먹는 이른 새벽식사다. 디안은 세상이 모두 잠든 2시에 일어나 사후르를 차려놓았다. 아내는 동틀 무렵부터 해질 때까지 14시간 동안의 금식을 고려해 영양가가 있으면서도 위에 부담이 덜한 음식을 차렸다. 흰 쌀밥에 닭튀김 한쪽, 찐 계란 반쪽과 두부, 뻼뻬 그리고 오이와 토마토 등 채소와 나물 등을 큰 접시에 담았다.

부디와 아내,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과 딸이 사후르를 먹는 동안 사원에서는 “방운~ 방운~ 방운~” 소리가 이어진다. 큰 아들 조꼬와 작은 딸 에니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3주 동안 학년말 방학이다. 부디는 식사를 마치고 잠시 쉰 후 코란을 봉독(Tadarus)하고, 신문 1면에 게재된 금식력(Imsakiya)을 확인했다. 7월 2일 화요일, 금식이 시작되는 시간인 임삭(imsak)이 4시32분, 새벽기도(Sholat Subuh)는 4시42분. 여기저기 사원의 스피커에서 기도하라고 외치는 아잔(Azan) 소리가 더욱 커졌다. 오토바이의 굉음, 폭죽소리, 동네 아이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들이 어우러지면서 하루가 시작됐다.

라마단은 이슬람력의 아홉번 째 달이다. 1400여 년 전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하마드가 아라비아반도 서쪽 동굴에서 알라로부터 코란의 계시를 받은 달이다. 이 달의 시작을 알리는 초승달이 떠 오른 다음 날부터 단식을 시작하는 이슬람교의 전통 행사다. 이 기간 중에는 일출에서 일몰 시까지 물을 포함해 어떤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되며 부부간의 성행위도 금지된다. 담배를 피워서도 안 되며 심지어는 침을 삼켜서도 안 된다.

아뿔싸! 부디는 사후르를 먹고 난 뒤 새벽기도를 마치고 모자란 잠을 보충하기 위해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것이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다. 후다닥 옷을 챙겨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사무실로 질주했다. 30분 앞당겨진 라마단 기간 출근시간보다 30분 늦은 8시쯤 허겁지겁 사무실에 도착한 부디는 “슬라맛 빠기(Selamat Pagi)”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침인사를 나누고, 책상에 앉아 오늘 해야 할 업무를 점검했다.

오전 업무를 정리하고 정오에 낮 기도(Sholat Dzuhur) 후, 인근 거래처에 외근을 나갔다. 오후가 되니 무더운 날씨에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허기지고 심리적으로도 지쳤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음식점 간판과 섹시한 여성이 눈에 띄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다. 오후기도(Sholat Ashar) 시간인 3시 21분이 가까워지자 길에서 보이는 사원으로 들어갔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지만, 살면서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일 년에 한 달은 알라께 자신이 지은 죄를 고하고 다시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슬람의 가르침이다. 또한 라마단 기간에 굶주림의 체험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이 기간 중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이슬람 사원에서 부까 뿌아사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딱질(Takjil)이라고 부른다. 이는 뿌아사 기간에만 있는 중요한 행사의 하나이다.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 중 단식을 하며 올리는 기도는 소원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 평소 보다 더 열성적으로 기도를 한다. 딱질과 자캇(zakat 희사) 또한 신성한 일이다.

‹ Kurma

‹ Kolak

부디가 다니는 회사는 라마단 기간에는 평소보다 출근 시간을 앞당기는 대신 1시간 일찍 퇴근한다. 자카르타 퇴근길은 오늘도 어김없이 교통지옥이어서 지친 육신을 더욱 힘들게 한다. 5시 52분… 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 사원에서 저녁기도(Sholat Maghrib)를 알리는 아잔 소리가 들린다. 가던 길을 멈추고 급한 대로 길가 좌판에서 파는 생수를 한 병을 3천 루피아에 사서 하루 동안 굶주린 속을 달래고 근처 사원에서 저녁기도를 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꼴락(Kolak)과 꾸르마(kurma)라고 부르는 야자대추를 준비해놓았다. 꼴락과 꾸르마는 당도가 높아 한나절 지쳐있는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꼴락은 통상 코코넛 버터라고 부르는 산딴(santan)에 전통 설탕인 굴라자와(gula jawa)를 넣고 바나나와 찐 고구마를 잘게 썰어 넣는다. 아가르아가르(agar-agar)라는 한천같은 것도 들어간다.

"꼭꼭 씹어 먹어라" 디안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아이들을 타이른다. 부까 뿌아사를 위해 아내가 성찬을 준비했다. 흰 쌀밥에 소또, 닭튀김, 생선튀김, 감자조림, 숙주나물 무침, 양배추 요리, 과일 등. 부디는 집 앞에 있는 사원에서 7시 7분부터 시작되는 밤기도(Sholat Isya)와 따라위(Tarawih) 예배에 참석하고 코란을 봉독했다. 부디는 이번 라마단에는 코란을 다 읽을 것이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은 벌써 잠이 들었다. 아내가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라며 라마단에 쓸 돈과 월급과 르바란 상여금(THR)을 계산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부부는 7월 25일부터 1주일 동안 이어지는 르바란(이둘피트리) 휴가 계획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위한 옷과 르바란에 때 가족이 입을 새 옷, 사원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희사인 자캇 그리고 고향의 친척과 친지의 아이들에게 줄 신권 1만 루피아짜리 100장을 준비하기로 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부디와 디안은 벌써부터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달려가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잠자리에 들었다.

연재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국기, 국어, 국장 및 애국가에 관한 2009년 법률 제 24호는 :

i). 인도네시아의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민, 회사(*외자투자 회사 포함),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지사 혹은 콘트랙터) 및 민간단체는 모든 계약서를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로 작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외국인 혹은 외국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중 언어(인도네시아어+상대 외국당사자의 국어 혹은 영어)로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ii).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열리는 포럼에서는 국내적인 포럼이던 국제적인 포럼이던 인도네시아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iii). 관공서 및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공식 대화를 인도네시아어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직장 내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잘 못하는 사람(외국인 포함)에게는 인도네시아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iv). 단체 혹은 국민이 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v). 인도네시아 국민 혹은 법인이 만든 건축물, 도로, 아파트, 상표, 상호, 교육기관 혹은 조직의 이름에 인도네시아어 이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vi).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유통되는 국산 혹은 외국산 제품 혹은 써비스 의 설명서를 인도네시아어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vii). 메스 메디어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인도네시아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특정 목적 혹은 특정 계층 메스 메디어는 예외).

인도네시아어 사용을 의무화한 상기 법률은 Global 시대에 역행하며, 경제 건설에 불가피한 외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바림직하지 않은 법규라고 초기에는 비판 여론과 법 개정 요구가 적지 않았으나 2009년 7월 9일 공포 이후 개정 없이 현재까지 유효하다.

1. 계약자유의 원칙

인도네시아 민법은 계약자유원칙을 천명하고 있다(제 1338 조). 계약체결자유 원칙에 근거하여 여하한 계약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며, 체결된 계약은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는 해약을 금하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계약의 특성상 본질적으로 포함되는 사항, 관행,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다. 계약의 해약은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해약 합의 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계약이 실효되며, 한 당사자가 계약된 내용을 어겼다고 계약이 바로 실효되지 않는다. 민법의 계약자유 원칙에 근거하여 계약 체결은 자유이나, 민법의 다른 조항은 계약의 적법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적법 조건을 구비한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적법 조건을 가추지 못한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외국어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의 자유이나,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지 않고 외국어만으로 체결한 계약서는 상술한 국기, 국어, 국장 및 애국가에 관한 2009년 법률 제 24호에서 의무화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혹시라도 계약의 상대 당사자가 계약서가 외국어로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들고, 악의를 품고 계약 무효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에는 불이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계약의 적법 조건

민법 제 1320 조에서 규정한 계약의 적법조건은 :
i).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합의가 있어야 한다.
ii).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iii).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목적물이 있어야 한다.
iv). 계약의 내용이 법규, 도덕, 윤리 및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는 이상 4가지 조건이다.

2.1.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2.1.1.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는 구두 혹은 서면 모두 해당된다. 합의 표시 방법은 i). 서면 합의, ii). 구두 합의, iii). 불완전한 말을 사용했으나 상대 당사자가 이해하고 합의, iv).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몸짓으로 합의, v). 묵언 혹은 침묵이나 상대가 이해하고 합의한 표시 방법이 있다.

2.1.2.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강제에 의한 합의, 사기에 의한 합의 혹은 착오에 의한 합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민법 제1321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대 당사자가 해약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다.

2.1.3. 계약 당사자의 합의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해약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계속 유효하며 법원의 판결로 취소가 가능하다.

2.2.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1. 누구나 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법률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는 법률행위 권리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고 있다. 민법상의 법률행위를 제한받는 자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이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권리가 없으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권리는 친권자인 부모에게 있으며, 법원의 판결문으로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법률행위 권리가 없으며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인에게 있으며, 주식회사의 직원은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법률행위 권리가 없으며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법률행위 권리는 이

사회에 있다. 재산 매각은 남편 혹은 부인 혼자서 매각은 불가하며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법률행위 권리가 있는 자, 즉, 법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춘 자라야 한다.

2.2.2. 계약 당사자의 자격 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해약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계속 유효하다. "예" 를 들면 미성년자인 아들이 컴퓨터 가게에 가서 컴퓨 터를 산 경우에 아들의 부모가 컴퓨터 매입계약 무효소송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결로 컴퓨터 매입이 법적효력을 상실하기 까지는 계속 유효하다.

2.3. 계약 목적물이 있어야 한다.

2.3.1. 계약 목적물이란 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도네시아어로는 Prestasi라고 Prestasi는 i). 어떠한 것을 넘겨 줘야하거나, ii).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거나, iii).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로 구성되어 있다. "예" 를 들면 부동산 매매를 계약하는 경우에 Prestasi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 주는 것과 부동산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2.3.2. 계약 목적물이 있어야 하는 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원인무효란 법리상으로는 해당 계약이 애시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 현실적으로는 계약 당자자간에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시에는 법적인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2.4. 법규,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2.4.1. 계약의 내용이 법규,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예" 를 들면 법규상으로 금하는 마약매매 계약, 도박계약, 장물 매매계약, 외국인에게 보유를 불허하는 부동산 차명 보유 계약, 부도덕한 계약결혼 계약,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데모 계약 등은 계약 내용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4.2. 계약 내용이 법규,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는 계약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법리상으로는 역시 해당 계약이 애시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 현실적으로는 계약 당자자간에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시에는 법적인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3. 결언

* 인도네시아의 국민, 회사, 단체 혹은 정부와 체결하는 계약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 혹은 인도네시아어를 포함한 이중언어(인도네시아어+외국어)로 작성해야 현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OKTN (KBS WORLD)

수임이는 상현의 아버지인 윤 회장의 계략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결국 자결한 들임 친부의 억울함을 필요줄 증거, 그것도 확실한(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Uang itu bagian dari dana gelap Tn. Yun Walau begitu belum ada bukti konkrit.

그 돈의 출처가 윤회장의 불법자금인것 같은데 분명한 증거가 아직 없어요.

옳고 그름/맞고 틀림을 증명하기 위해선 증거나 설명 또는 입증해 줄만한 증인이 필요하겠죠.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가사 도우미 또는 기사들에게 일정한 물건 구매를 부탁하거나 기름을 주유하라고 시키고 나서 영수증 또는 지불을 증명할 만한 것을 못 받을때가 많은데요 그럴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Bukti** 입니다.

주유의 경우 **Struk** 구매 영수증의 경우 **Kwitansi(Tanda terima)** 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지불 영수증 구매 영수증 줘봐요" 라고 할때 **Dimana ada bukti pembayarannya?** 또는 "영수증(수령증) 꼭 가져와요" 할때 **(Tolong) Harus bawa bukti pembayaran atau bukti pemerimaan**. 영수증 잊지 말고 받아와요. **Jangan lupa terima bukti pembayaran**.

이외에도 **Bukti**와 같이 사실을 입증하고자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유사 단어들 **kesaksian/fakta/ data/ informasi/ tand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Bukti /buk.ti/** (명사로 어떠한 사건의 사실 또는 어떠한 행위의 징표,표시등 눈으로 확인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증명, 증거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 **Sesuatu yang menyatakan kebenaran suatu peristiwa; keterangan nyata; hal yang menjadi tanda dari suatu perbuatan**

– **Surat ini adalah bukti bahwa Anda telah meminjamkan saya uang.**
이 문서는 당신이 나에게 돈을 차용해 갔다는 증거 입니다.

– Dia dituduh mencuri, tetapi tidak ada buktinya.
그는 도둑으로 기소당했지만 증거가 없다.

2) kesaksian /ke.sak.si.an 명사로 어근은 saksi(목격자, 증인)로 증인이 진술한 증언 또는 증거를 나타내는 뜻이다.
= Keterangan (pernyataan) yang diberikan oleh saksi.

– Kesaksiannya akan menjadi kunci dari penyelesaian perkara ini.
그 증언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 Nyawanya terancam setelah dia memberikan kesaksian atas kasus korupsi itu.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증언한 후로 그의 목숨은 위협 받고 있다.

3) Fakta /fak.ta 명사로(어떠한 사건나 상황이 이미 벌어진) 확인된 사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 등을 뜻한다.
= Hal (keadaan, peristiwa) yang merupakan kenyataan; sesuatu yg benar–benar ada atau terjadi.

– Berita adalah fakta yang disiarkan.
뉴스는 확인된 사실을 보도하는것이다.
– Indonesia dikabarkan mengalami per–tumbuhan ekonomi yang signifikan selama beberapa tahun terakhir, tetapi fakta yang ada di lapangan memperlihatkan yang sebaliknya.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년간 눈부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은 정반대이다.

4) Data /da.ta 명사로 자료, 명확히 설명가능한 사실,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등을 나타낸다.
= Keterangan yg benar dan nyata; keterangan atau bahan nyata yg dapat dijadikan dasar kajian (analisis atau kesimpulan

– Kami sedang mengumpulkan data tentang kehidupan petani Indonesia.
우리는 지금 인도네시아 농민의 삶에 대한 자료를 수집 중이다.
– Aku menyimpan semua data yang berurusan dengan pekerjaanku di komputer kantorku.
업무관련 모든 자료는 회사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다.

5) Informasi /in.for.ma.si 명사로 Data와 같이 자료의 뜻을 같지만 어떠한 소식에 대한 정보, 어떠한 사실을 뒤받침할 정보, 자료를 뜻한다.
= Penerangan, pemberitahuan, kabar atau berita tentang sesuatu.

– Zaman sekarang, informasi tentang apapun sangat mudah didapatkan melalui internet.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어떠한 정보(자료도) 쉽게 얻을 수 있다.
– Anda bisa pergi ke Bagian Informasi untuk menanyakan hal itu.
그것에 대해 물어보려면 정보(자료 센터)국에 가보세요.

6) Tanda /tan.da 명사로 어떠한 상징, 표식,증상, 징후, 증거등을 나타낸다.
= Yang menjadi alamat atau yang menyatakan sesuatu;gejala;bukti; pengenal atau lambang.

– Dari kejauhan terdengar bunyi sirene tanda bahaya.
멀리서 위험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 Delegasi perwakilan Indonesia mengenakan tanda Garuda Pancasila.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빤짜실라 가루다 표식(상징)을 착용했다.

◘ 인도네시아는 한국처럼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는대신 서명이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서명은 Tanda tangan 이라고 하며,Tanda baik (좋은 징후) Tanda Buruk(나쁜 징후) 라는 숙어로도 종종 사용됩니다.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천사는 여기 머문다

전경린 저 | 문학동네

11년 만에 나온 전경린의 소설집

첨예한 여성적 감각으로 생명을 사유하는 소설가 전경린이 네번째 소설집을 펴냈다. 『물의 정거장』 이후 11년. 단편 9편을 담았다. 2007년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악마와 천사라는 본성의 양면성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천사는 여기 머문다 2」와 2011년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강변마을」, 2004년 대한민국소설상을 수상한 「여름 휴가」 등, 평단과 독자 모두를 만족시켜온 작품이 대거 실렸다.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조국 저/류재운 정리 | 다산북스

조국 교수가 털어놓는, 조국에 관한 이야기

서울대 교수이자 지식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국 교수의 인생과 공부에 대한 여정을 담은 책이다. 이제껏 조국 교수가 출간한 사회과학서와 다르게 처음으로 자신의 맨얼굴을 진솔하게 고백했다. 집필 기간에만 2년이 걸릴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이 책은 류재운 작가가 인터뷰한 뒤, 조국 교수의 내밀한 이야기를 이끌어내 글로 구성하고, 이를 조국 교수가 전면 재구성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집필하며 완성됐다. 이 책에는 '엄친아'로만 보였던 조국 교수가 어쩌다가 만 16세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게 되었는지, 당시 최연소로 만 26세에 교수가 될 수 있었는지, 그러나 교수가 되자마자 왜 감옥에 가야 했는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표 진보 지식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담겼다.

너무 애쓰지 말아요

이노우에 히로유키 저/예유진 역 | 샘터

지친 당신을 위로하는 30가지 처방전

현대인은 피곤하다. 일에, 인간관계에, 꽉 막힌 도로에 지쳐간다. 일이 잘못되면 스스로를 탓하기 일쑤다. 일본의 저명한 치과의사이자 심리치료사인 저자 이노우에 히로유키는 '마음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무의미한 자책을 멈추라고 말한다. 책임감 강하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며 지나치게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돌아보지 못하고 지쳐버린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자기긍정이라는 주장을 저자는 책으로 전한다.

사춘기라서 그래?

이명랑 저 | 탐

사춘기 딸과 열혈 엄마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사춘기 딸과 엄마의 일상을 리얼하게 묘사한 이명랑 작가의 청소년 소설. 이명랑 작가는 소설로 등단해 동화와 청소년 소설 등 다방면으로 창작활동을 해왔다. 이번 작품에는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로서의 고민이 담겼다. '교복 맞추는 날', '시험 기간' 등 또래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딸의 에피소드와 함께 '엄마의 일기장'이 교대로 이어진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던 모녀 사이도 서로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 하루라도 조용히 지나가면 입안에 가시가 돋칠 것 같은 모녀의 색다른 화해 방법도 흥미롭다.

왜 로봇의 도덕인가

웬델 월러치,콜린 알렌 공저/
노태복 역 | 메디치미디어

로봇에게 윤리는 필요한가

공상과학 소설과 영화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로봇의 도덕성은 각종 서비스 로봇, 전투병 로봇, 개인화된 검색엔진 기술, 자동화된 컴퓨터 시스템 등 지능 기계의 출현으로 이제 현실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인간의 감독 없이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로봇을 포함한 모든 지능적 기계의 지침이 될 윤리적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 책은 로봇 윤리라는 신흥 분야에 관한 최초의 입문서라고 볼 수 있다. 예일 대학교의 '생명윤리를 위한 학제간 센터'의 윤리학자와 인디애나 대학교의 인지과학 교수가 함께 썼다. 공상과학 소설의 통속적 화두에서부터 첨단 로봇공학의 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흥미로운 소재를 다룬다.

피파 마피아

토마스 키스트너 저/김희상 역 |
돌베개

국제축구연맹 부패의 실상을
파헤치다

국제축구연맹 부패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친다. 흡사 마피아를 연상케 하는 조직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축구의 핵심 영역을 장악했다. 회장 자리를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며 오가는 뇌물, 월드컵 개최권이 카타르와 러시아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막대한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는 의혹, 방송 중계권을 둘러싼 만성적인 부패. 국제스포츠계에서 자행되는 범죄의 실상을 그 누구보다도 환히 아는 토마스 키스트너는 20년째 피파의 음험한 구석을 취재해온 전문기자다. 그가 파헤친 피파의 실상은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어떤 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단 한 명의 보스가 군림하는 패밀리였다.

윌리의 신기한 모험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 웅진주니어

그림책 거장 앤서니 브라운이 다시 쓴 명작 동화

앤서니 브라운이 고전 명작 10편을 다시 그렸다. 모든 동화의 주인공은 윌리. 윌리와 함께 주인공이 되어 모험에 나설 수 있도록 이야기를 짰다. 이 책에는 총 10편의 동화가 담겼다. 『로빈슨 크루소』, 『보물섬』, 『로빈 후드』, 『부싯깃 통』,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오즈의 마법사』, 『라푼젤』,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피노키오』가 그것이다.

그림 속 경제학

문소영 저 | 이다미디어

명화 속에 숨겨진 경제학 코드

미술 작품을 경제학, 문학에 녹여 독특한 관점으로 해석해 온 문소영 기자의 책. 명화 속에 숨겨진 경제학 코드를 짚어냈다. 이 책은 미술과 경제학을 바탕으로 서구의 과거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지금, 여기,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예술과 경제, 정치,사회적 변동 사이의 고리를 찾는 통섭적 연구에 흥미를 갖고, 또 서구의 미술사와 경제사를 바탕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기를 당부한다.

YES24.COM INDONESIA

도서 관련 문의 : YES24인도네시아 이준호
021-2902-1714(직통105) / 0815-830-3543 /
help@yes24.co.id / www.yes24.co.id

세월호 성금 모금

번호	기업. 단체명	대표자	금 액	
			USD	IDR
1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1,000	
2		이 정		5,000,000
3	PT. DONGAN KREASI	박헌식	500	
4	한솔 인도	김 선		30,000,000
5	No Name (via atm)			1,000,000
6	PT. DAYUP INDONESIA	석웅치		30,000,000
7	우리은행	최상학		10,000,000
8		양선영	100	
9	PT. DOOSAN CIPTA BUSANA JAYA	배도운		10,000,000
10	NO NAME			1,000,000
11	PT. HANKOOK CERAMIC	차상만		30,000,000
12	PT. ASIA TOP INVESTMENT	김희년		10,000,000
13	PT. STAR CAMTEX	김주철		10,000,000
14	PT. DONGJUNG INDONESIA	조규철		10,000,000
15	PT. GAYA INDAH KHARISMA	김영욱	1,000	
16	HYUNDAI E & C	박찬성		5,000,000
17	PT. UNITRA INDONESIA	정병수	100	
18	일요신문	구자성		10,000,000
19	ROTC	김수용		5,000,000
20		김성은	100	
21		이완주	500	
22	JAVA PALACE HOTEL	박재한		12,000,000
23	PT. VICTOR JAYA RAYA	이호덕		10,000,000
24	SPH KEMANG VILLAGE 한국학생 일동			10,000,000
25	부산외국어대학			10,000,000
26	PT. DONG SUNG JAKARTA	김재유		10,000,000
27	PT. PRATAMA ABADI INDUSTRI	서영률	5,000	
28	구룡회	김주철		10,000,000
29	능인정사			6,600,000
TOTAL			8,300	235,600,000

2014년 한인회 임원찬조금 명단

7월7현재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 액	
					USD	IDR
1	한인회 명예회장	승 은 호	PT. KORINDO GROUP	2014	19,973	
2	한인회 명예고문	김 재 유	PT. DONG SUNG	2014	5,000	
3	한인회 회장	신 기 엽	PT. HANINDO EXPRESS	2014	20,000	
4	한인회 수석부회장	배 도 운	PT. DOOSAN CIPTA BUSANA	2014	10,000	
5	한인회 수석부회장	조 규 철	PT. DONG JUNG IND.	2014	10,000	
6	한인회 부회장	강 희 중	PT. SUNG TECHNOLOGY	2014	5,000	
7	한인회 부회장	김 희 년	PT. E-TRADING	2014	5,000	
8	한인회 부회장	김 영 욱	PT. GAYA INDAH KHARISMA	2014	5,000	
9	한인회 부회장	김 주 철	PT. STAR CAMTEX	2014	5,000	
10	한인회 부회장	김 준 규	PT. CIPTA ORION METAL	2014	5,000	
11	한인회 부회장	박 재 한	PT. BUSANA PRIMA GLOBAL	2014	5,000	
12	한인회 부회장	엄 정 호	PT. ING INTERNATIONAL	2014	5,000	
13	한인회 부회장	이 지 현	PT. ZIMMOAH MARINE	2014	5,000	
14	한인회 부회장	이 진 수	PT. SUNGBO JAYA	2014	5,000	
15	한인회 부회장	이 호 덕	PT. VOCTOR JAYA RAYA	2014	5,000	
16	한인회 부회장	황 의 상	PT. INHWA INDONESIA	2014	5,000	
17	한인회 자문위원	강 덕 재	PT. LEMBU SWANA PERKASA	2014	1,000	
18	한인회 자문위원	김 문 환	PT. KASINDO GLOBAL UTAMA	2014	1,000	
19	한인회 자문위원	김 석 래	PT. INACON LUHUR PERTIWI	2014	1,000	
20	한인회 자문위원	김 영 주	PT. DEWA CITRA SEJATI	2014	1,000	
21	한인회 자문위원	박 동 희	PT. TRIKARYA ALAM	2014	1,000	
22	한인회 자문위원	배 상 경	PT. TEBO AGUNG INTERNATIONAL	2014	2,000	
23	한인회 자문위원	송 재 선	PT. PUTRA HANKUK	2014	1,000	
24	한인회 자문위원	양 영 연	PT. BOSUNG INDONESIA	2014	1,000	
25	한인회 자문위원	이 진 호	PT. JIN YOUNG	2014	1,000	
26	한인회 자문위원	정 무 웅	코린도 장학재단	2014	1,000	
27	한인회 자문위원	최 정 남	PT. GLOBAL FIBERINDO	2014	1,000	
28	한인회 이사	강 주 석	PT. SERIM INDONESIA	2014	1,000	
29	한인회 이사	강 호 성	PT. ANUGRAH CIPTA MOULD SHOP	2014	1,000	
30	한인회 이사	구 자 성	일요신문	2014	1,000	
31	한인회 이사	김 경 곤	PT. SUKWANG INDONESIA	2014	1,000	
32	한인회 이사	김 경 국	PT. NES	2014	1,000	
33	한인회 이사	김 도 상	PT. HONGIK INDONESIA	2014	1,000	
34	한인회 이사	김 문 호	PT. DADA INDONESIA	2014	1,000	
35	한인회 이사	김 상 태	PT. SMS GROUP	2014	1,000	
36	한인회 이사	김 성 국	PT. TRISTAN RESOURCES	2014	1,000	
37	한인회 이사	김 세 형	PT. BTEXB INDONESIA	2014	1,000	
38	한인회 이사	김 영 만	PT. KIPCO UTAMA ENERGY	2014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 액	
					USD	IDR
39	한인회 이사	김 희 익	PT. EPS INDONESIA	2014	1,000	
40	한인회 이사	노 승 원	PT. SGWICUS INDONESIA	2014	1,000	
41	한인회 이사	노 예 범	PT. SAM PUTRA INTI	2014	1,000	
42	한인회 이사	박 성 대	PT. HANJIN INDONESIA	2014	1,000	
43	한인회 이사	배 정 옥	PT. AGRI TRADING INVESTMENT	2014	1,000	
44	한인회 이사	서 영 률	PT. PRATAMA ABADI	2014	1,000	
45	한인회 이사	신 규 태	PT. INDO SUNGIL JAYA	2014	1,000	
46	한인회 이사	신 만 기	PT. PARKLAND WORLD	2013	1,000	
47	한인회 이사	안 선 근	U.I.N UNIVERSITY	2014	1,000	
48	한인회 이사	안 홍 제	PT. KOLON INA	2014	1,000	
49	한인회 이사	양 시 완	PT. KISWIRE BALARAJA	2014	1,000	
50	한인회 이사	양 태 화	PT. BOSUNG INDONESIA	2014	1,000	
51	한인회 이사	오 세 명	PT. SUNG LIM CHEMICAL	2014	1,000	
52	한인회 이사	유 주 완	PT. FEEL BUY	2014	1,000	
53	한인회 이사	윤 석 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4	1,000	
54	한인회 이사	이 소 왕	L S W	2013	1,000	
55	한인회 이사	이 지 완	PT. JIN YOUNG	2014	1,000	
56	한인회 이사	이 현 상	PT. ROYAL KORINDAH	2014	1,000	
57	한인회 이사	임 성 용	PT. MIRINA NUSANTARA	2014	1,000	
58	한인회 이사	정 철 주	PT. DONG IL	2014	1,000	
59	한인회 이사	차 상 만	PT. HANKOOK CERAMIC	2014	1,000	
60	한인회 이사	홍 기 호	PT. AURORA WORLD	2014	1,000	
61		Hong	KOGA	2014	1,000	
총 금액					$165,973	Rp-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KEBI HANA BANK	
계좌번호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 200 5949	RP A/C NO: 001 00 11 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INNOMATE INDONESIA

Creative Director
President Director
Tae-Joong. Rhee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A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T +62. 21. 7919. 2006(Rep.) I 070. 4644. 2280(Dir.) F +62. 21. 7919. 2062
M 0812. 1011. 1000 / 0822. 2110. 2922 E jasoncpu@gmail.com
Design Division A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둥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브까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587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땀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7782 886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헤리티지인터내셔날스쿨	08129712306

유치원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MATAARI TOUR & TRAVEL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人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샌즈몬테소리스쿨	720	6629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죠지언 퍼니쳐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냐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겔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쟈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효(Sudirman) 9127 2262
가효(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횟집(끌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라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끌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22 72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끌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안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안하우스(반둥) (022) 203 1626
코리안우스(횟집)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끌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끌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끌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끌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BBQ(끌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집

고향집 하숙	83701492/081511597510
레저게스트하우스(땅그랑)	0811143437
쉼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뽄독인다	0821 2592 7000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BL. M)	0856 9226 9933
Full House	0818 901 609
시내중심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0821 1424 5055
강남하숙	725 3360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뽄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쎄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한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김순재)	0856 1376 677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9868 9802
서예협회(제종경)	0811 8304 77
월화차문화원(이선주)	0821 11794242
색소폰동우회(배종문)	0816 881423
문인협회(사공경)	0816 1909976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1 177503
국악사랑(장방식)	0811 902003
헤리티지(이수진)	0816 1300 210
색동회 (강희중)	0816 798221

인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날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KORINDO P1ants the Green

KORINDO
KORINDO GROUP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WISMA KORINDO JL. M.T. HARYONO KAV.62 JAKARTA 12780, INDONESIA P.O.BOX 3646, 4463 JKT. T +62-21-7975959 F +62-21-7976401 www.korindo.co.id

Haesley Nine Bridge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 다른 **행동** ; 다른 **결과** ; 앞서는 **남다름**!!

TtU는 마인드 행동양식, 표현방식 등
기존의 모든 것을 개혁하려는 이노메이트의 핵심입니다.!

The reception area:the sailing-boat-like reception desk visualises the value-thinking IBM lives by.

KBS Media Center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Creative human space design INNOMATE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 Rep. 021. 7919. 2006 / IP. 070. 4644. 2280 / M 0812. 1011. 1000

이노메이트의 수익금의 일부는 JIKS(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고객의 명의로 장학금으로 기부 예정입니다.

www. kideco.com

30년의 선물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열기가 되어 다다릅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누빈 사람들, **KIDECO**
우리의 열정과 뚝심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